

광 고

원양산업

제 1154 호
(2023년 2월 15일 발간)

창간 :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 (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2023년도 협회 회장단 오찬 간담회 개최 / 4
- 신임 원양산업과장 협회 방문 / 4
- 2022년 4분기 외국인 선원 합동점검 회의 개최 / 5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

- '23년 1월 보고 내용 / 6
- 요리 만들기 / 9
(레몬블랑 메로구이)



해외수산정보

■ 국제유가 동향

- MGO 싱가포르 벙커 가격 전월 대비 11% 하락 / 10

■ 참치어업 동향

- 방콕 가다랑어 톤당 1,700 달러 유지 / 11
- 12월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어획량 14% 감소 / 11

- IOTC, dFAD 관리 조치 채택 / 12
- IOTC FAD 금지 조치로 시장 혼란 우려 / 13
- John Burton, IOTC dFAD 논의 앞두고 주목 / 14
- 日 1월 도요스시장 냉동 눈다랑어 가격 하락 / 15
- 日 도요스시장 2022년 냉동 눈다랑어 상장 6% 감소 / 15
- 日 2022년 1~12월 냉동 참치류 수입 통계 발표 / 16
- 日 도쿄 시장 2019~2022년 냉동참치류 취급실적 / 17
- 日 2018~2022년 참치류 지출금액 및 구입수량 / 18
- 日 12월 냉동 참다랑어 수입 단가 1,096 엔 / 18
- 태국, 2022년 냉동 참치 원어 13억 달러 수입 / 19
- 美 선망선단, 아메리칸사모아 양륙 허가 요청 / 19
- 태국 2022년 가다랑어 원어 수입량 증가 / 20
- 태국 2022년 황다랑어 수입량 하락 / 20
- 태국, 2022년 참치캔 수출량 증가 / 21
- 키리바시, 피닉스제도 보호구역 재개방 / 21
- 한국 2021년 WCPO 선망선 어획량 감소 / 22
- 이집트 달러 위기로 인해 태국 참치업계 일부 영향 / 22
- 마주로 참치 전재 건수 2~3분기 반등 전망 / 23
- 세이셸 해양공간계획 완료 단계 / 23

Contents

- 에콰도르 만타 가다랑어 가격 1,750 달러로 하락 / 24
- TUNACONS,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MSC 인증 추진 / 24
- 2021년 대서양 참치 어획량 14% 감소 / 25
- “민간 로비, 지속가능성 저해하지 않아” / 26
- 그린피스, 미국 소매업체 평가…대부분 낙제점 / 27
- 日, 원양 참치어업 정보서비스 운용 추진 / 27
- 프랑스 기업, 선망선 보존 시스템 개발 / 28
- 일본참치그룹, 모리타니와 어업권 협정 체결 / 28
- 日 미쓰비시, Princes 통조림 부문 매각 결정 / 29
- Européche-Innomar 스마트 부이 관련 MOU 체결 / 29

■ 오징어어업 동향

- 아르헨티나 일렉스오징어 어획 부진 / 30

■ 명태어업 동향

- 러시아 오호츠크해 2월 초 명태 어획량 3% 증가 / 31
- 러시아 2022년 어획량 3% 감소 / 31
- 러시아, 일본과의 연례 어업 회담 거부 통보 / 32
- EU, 러시아 신조선·개조선 대상 수입 승인 거부 / 32
- 러시아 필렛 생산량, 최초로 미국 추월 / 33
- 노레보 유럽, 창업자 아들이 경영권 승계 / 33
- 美 명태 등 흰살생선 수요 증가 예상 / 34
- 美 알래스카 명태, 대구 어업 10만톤 이상 어획 / 34
- 알래스카 명태, 경기 침체 동안 가격 강세 예측 / 35
- 일본수산, ‘속근단백’ 바(bar) 형태 신제품 출시 / 35

■ 공치어업 동향

- 日 2022년 공치 어획량 1만 7,910톤 / 36
- 日 11월 냉동 공치 재고 6,647톤 / 36

■ 각국 수산 동향

- 새 FDA 규정, 美 수산물 공급 이력추적 요건 강화 / 37
- Européche, BBNJ 협정서 어업 제외 촉구 / 37
- 美 연구, 임신부 주 1~3회 어류 섭취 권장 / 38
- 수산물 기반 오메가3, 만성 신장질환 위험 감소 / 38
- 美 수산물 소매 매출, 올해 하반기 긍정적 전망 / 39
- 냉동컨테이너 운임, 팬데믹 이전 수준 회귀 / 39

■ 쉬어가는 난 (시)

- 파도 〈유승우〉 / 40

■ 국내 수산 정보

- 1월 오징어 국내 동향 / 41
- 1월 명태 국내 동향 / 43
- 2023년 해양수산 ODA, 20여개국에 287억원 / 45
- 선원정책 혁신을 위해 노사정 함께 머리 맞댄다 / 47
- 농특위, 수산단체와 만남의 시작 / 47
- 해수부,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발표 / 48
- 한·페루 수산물 위생약정 / 49
- 고부가가치 수산 가공식품 개발로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 / 49
- 「대한민국 수산대전 - 2월 깜짝특별전」 개최 / 50
- 해수부, 기업애로 해소로 수출 확대 도모한다 / 50

2023년도 협회 회장단 오찬 간담회 개최

협회 예산 등 논의

우리 협회 회장단 간담회가 지난 2월 3일 협회 인근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회장단 간담회에는 우리 협회 윤명길 회장을 비롯, 경양수산 박길주 사장, 남북수산 최용태 회장, 동원산업 이명우 사장, 동원수산 왕기철 사장, 사조산업 김치곤 사장, 신라교역 김호운 사장, 정일산업 전선중 부사장 <이상 회사명 가나다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회는 회장단에 △2023년도 협회 일반예산 편성 방침, △외국인해기사 승선을 위한 업무추진 경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검토, △2023년도 이사회 및 정기총회 일정 등을 보고했다.



신임 원양산업과장 협회 방문

원양산업 현황 및 주요업무 설명

1월 5일부터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과장으로 선임된 이재영 과장이 지난 1월 18일에 우리 협회를 방문했다.

이날 우리 협회 임원과 부서장은 이재영 과장에게 원양산업 현황과 협회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2022년 4분기 외국인 선원 합동점검 회의 개최

승선자 송출비용 부담 여부, 임금 보장 여부 등 조사



「2022년 4분기 외국인 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 노사정 합동점검 회의」가 지난 지난 1월 27일 우리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노사정 합동점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이 8회차이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박승희 사무관, 김용식 주무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윤숙 국장,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 마창성 본부장, 정찬호 국장, 우리 협회 소기동 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들은 우리 원양선사 34개사, 183척에 승선한 4,331명의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송출비용 부

담 여부, △임금보장 여부, △하선 희망자 수요조사 실시 및 조치 여부, △휴식시간 부여 여부, △인권 고충상담 실시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선사가 개선안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협회는 노사정 합동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될 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1월)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관



김점봉
명예해양수산관

가. 세네갈 수산장관 “올바른 경로 아니면 면허발급 불가”

- 파페 사그나 음바예(Pape Sagna Mbaye) 수산해양경제부 장관은 외국 선박의 어업 면허 부여를 결정할 때, 어업 면허를 부여하기 위한 어업허가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서는 세네갈에서 어떠한 면허도 발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나. 유류가격 동향

| 공급 | 가격 | 유종 | 조사일 |
|-----|----------|----|----------|
| 다카르 | 977 €/MT | 경유 | '23.1.26 |

다. 참치가격 동향

| 어종 | 규격(파운드, lbs) | 가격(유로/톤) |
|------|--------------|----------|
| 가다랑어 | 3.4kg | 1,600 |
| | 1.8kg | 1,550 |
| | 1.5kg | 1,400 |
| 황다랑어 | 10kg | 1,750 |
| | 3.4kg | 1,650 |
| | 1.8kg | 1,550 |
| 눈다랑어 | 10kg | 1,600 |
| | 3.4kg | 1,600 |
| | 1.8kg | 1,550 |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관



김종태
명예해양수산관

가. 피지 총선 이후 근황

- 피지 총선으로 인한 정권교체 후 신임 총리 Sitiveni Rabuka는 민간, 군, 외국의 폭넓은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고 빠르게 고위 인사를 교체시키며 사회 안정화 중.
- Westpac Fiji 은행은 2022년 총선과 정권 교체로 인해 올해 더 많은 신뢰를 구축하고 국내·해외 투자를 장려할 것이라 발표함.

나. Malaita 주지사 해임

- 솔로몬제도 Malaita의 Daniel Suidani 주지사는 친중 성향의 주 의회 불신임투표 결과 해임.
- Suidani 주지사는 작년 4월 체결된 중국과의 안보협정에 비판적이었으며, 중국기업을 금지하고 미국 개발지원을 수락하는 등의 행보를 보임.

다. 참치가격 동향

| 어종 | 규격 | 가격(\$/톤) | 기타 |
|-------|--------|----------|--------------|
| 날개다랑어 | 10kg 상 | 2,900 | 로인가공용(PAFCO) |

라. 유류가격 동향

| 공급 | 가격 | 유종 | 조사일 |
|-------|------------|-----|---------|
| TOTAL | 1,080달러/MT | MGO | '23.2.9 |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어업 동향

- 금월 사모아 및 연근해 어장인 쿡아일랜드 어장에서의 평균 어획량은 날개다랑어 0.5~1.0톤,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 0.2~0.5톤임.

나. 美 국적 선망선 대상 양륙허가 시스템 구축 권한 관련 법안, 하원 제출

- 미국 국적 선망선에 대한 현지 허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권한을 항만청에 부여하는 법안이 지난 주 아메리칸사모아 하원에 제출함.
- 현지 면허 시스템 개발을 통해 현지 참치캔 가공공장에 공급하는 미국 선망선이 아메리칸사모아에 기반을 둔 선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현지 가공공장 사용 및 전재를 위해 아메리칸사모아에 정기적으로 양륙하는 현지 기반의 선망선에 양륙 허가를 발급하는 것이 해당 법안의 목적.
-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양륙 허가에 대한 연간 수수료는 500 달러임.

다. 참치가격 동향

| 어종 | 규격 | 가격(\$/톤) | 기타 |
|------|-----|----------|----|
| 황다랑어 | 라운드 | 1,750 | |
| 눈다랑어 | 라운드 | 1,550 | |
| 가다랑어 | 라운드 | 1,550 | |

라. 유류가격 동향

| 공급 | 가 격 | 조사일 |
|--------------|----------------|---------|
| Clipper, Oil | \$3.76(gallon) | '23.2.7 |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수산업계 온실가스 감소정책 관련 정부 지원금 공표

- 뉴질랜드 이동수단으로부터 배출되는 총 온실가스의 10%가 수산업계로부터 배출되고 있다

는 연구결과가 발표됨.

- 이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공표함.
- 정부는 전기로 운행하는 선박 외에도 프로펠러 최적화, 선박 외부 코팅 등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선별된 프로젝트에 200만 달러까지 지원을 약속함.
- 추후 연구결과에 따라 선박시설 업그레이드 등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됨.

나. 유류가격 동향

| 공급 | 가격 | 유종 | 조사일 |
|----|------------|-----|---------|
| Z | 1,244달러/MT | MGO | '23.2.7 |

다. 어류가격 동향

| 어종 | 규격 | 단가 | 기타 |
|-------|----|-------|----|
| SQUID | 2L | 4,750 | - |
| | L | 4,400 | |
| | M | 4,050 | |
| | 2M | 3,650 | |
| | S | 3,250 | |
| | 2S | - | |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

가. 가나만 중서부수산물장회의 개최

- 제14회 기니만 중서부 수산장관 회의가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
- 회의 주제는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를 위한 효과적인 어업 관리 지원” 으로, IUU어업 관행, 해양 오염, 해양 서식지 파괴 위협 등에 관해 논의.
- 해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으며 FCWC가 공동 순찰 임무를 도입 논의함.
- 더불어 어선 선원들을 훈련시켜 해상에서 해적선을 식별하고 경비정 요구 정보를 전달하여 관제 센터에서 즉각 경보를 알리는 안을 논의함.

나. IUU 조치로 트롤 어선 56척 허가 미취득

- 가나 트롤선 56척이 수산양식개발부(MoFAD) 새 규칙 미준수로 인해 조업 허가 취득 실패.
- 새로운 어업 관리 조치는 승인되지 않은 그물을 가진 선박이 가나 해역에서 조업하는 것을 금지.
- 또한 해상 불법 전채 방지를 위해 트롤선의 15% 혼획 허용 규정을 취소함.

다. 참치가격 동향

| 어종 | 규격(kg) | 가격(US\$)/톤 | 기타 |
|------|---------|------------|----|
| 황다랑어 | 10kg 상 | 2,200 | |
| | 10kg 하 | 1,760 | |
| 가다랑어 | 3.4kg 상 | 1,400 | |
| | 1.8kg 상 | 1,350 | |
| | 1.5kg 상 | 1,200 | |
| | 1.5kg 하 | 1,050 | |

라. 유류가격 동향

| 공급 | 가격 | 유종 | 조사일 |
|------|------------|-----|----------|
| 양상급유 | 1,050달러/kl | MGO | '23.1.31 |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물



정승화
명예해양수산물

가. PNG 참치선망선 조업일수 판매 관련

- 참치 선망선에 대한 조업일 판매가 2023년에는 이전과 다르게 진행될 예정임.
- 2022년까지 수산청은 외국 국적 어선에 적용하던 VD(USD 10,500/day)를 PNG에 직접 투자한 참치캔 가공회사의 어선에도 똑같이 적용했으나, 2023년부터는 차등을 두기로 하는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짐.
- 현재 PNG 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는 상황.

나. 어류가격 동향

| 어종 | 단가 | 규격 | 기타 |
|-------------|---------|----------|----|
| 생물 자연산 바다가재 | 31.58달러 | 0.6~1kg | |
| | 41.63달러 | 1~1.5kg | |
| | 53.12달러 | 1.5kg 이상 | |

다. 유류가격 동향

| 공급 | 가 격 | 유종 | 조사일 |
|-------------------|-------------|--------|----------|
| TWL Logistics Ltd | 1.0366달러/리터 | Diesel | '22.12.7 |

〈계재순서 : 명예해양수산물 성명 가나다순〉



레몬블랑 메로구이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 메로 140g 2팩, 빵가루 3큰술, 파슬리 가루 약간

<소스1>

마요네즈 2큰술, 설탕 1큰술, 식초 1/2큰술, 홀그레인 머스타드 1/2큰술

<소스2>

버터 2큰술, 다진 양파 1큰술, 설탕 1큰술, 화이트와인 식초 1큰술, 레몬즙 1큰술, 생크림 4큰술, 후추, 소금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메로에 소금, 후추를 뿌린 후, 소스1을 바르고 빵가루, 파슬리 가루를 뿌린다.
(소스1 재료를 섞어서 바른다)
- ② 200도 예열된 오븐에 7분간 굽는다.
- ③ 팬에 버터를 녹이고 다진 양파를 볶다가 화이트와인 식초를 넣어 신맛 날려주고 레몬즙을 첨가해 졸이다가 생크림 넣고 소금 후추 간을 한다.
- ④ 접시에 레몬블랑 소스2를 얹고 구운 메로 얹고 샐러드와 곁들이면 완성



MGO 싱가포르 벙커 가격 전월 대비 11% 하락 월 평균으로 보면 7% 하락

러시아가 다음달부터 원유 감산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이 최근 전략비축유를 방출하기로 결정하면서 국제유가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12월 15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82.95 달러, WTI 가격은 78.59 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85.38 달러를 기록했다.

2월 13일 기준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벙커 가격은 톤당 817 달러로 1월 13일(919 달러) 대비 11% 하락했다.

2월 평균(2.1~2.13) 가격은 832 달러로 전월 평균(1.1~31) 897 달러 대비 7% 하락했다. 전년 2월(2.1~28) 평균과 비교해서는 거의 동일했고, 전전년 2월과 비교해서는 61% 상승했다.

2023년 평균(1.1~2.13) 가격은 876 달러로 전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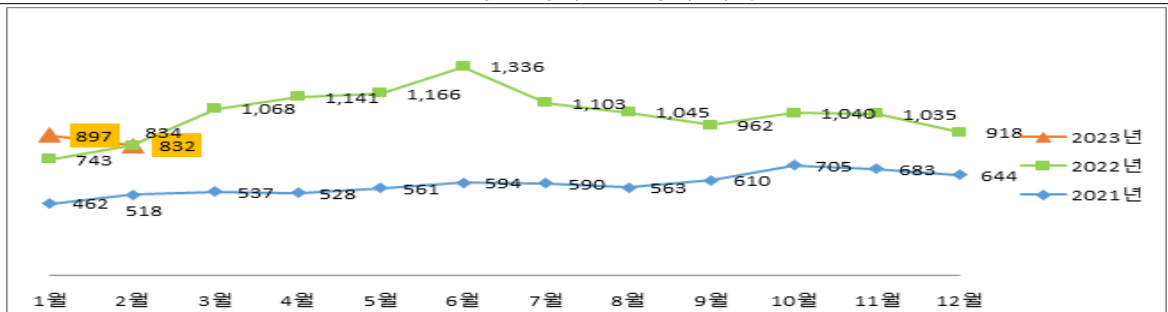
(1.1~12.31) 평균 대비 15% 감소, 전전년 평균 대비 50% 상승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월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석유 수요를 전년 대비 약 200만배럴(하루) 늘어난 것으로 전망해 수요 증분 전망을 전월 전망치 대비 10만배럴(하루) 상향 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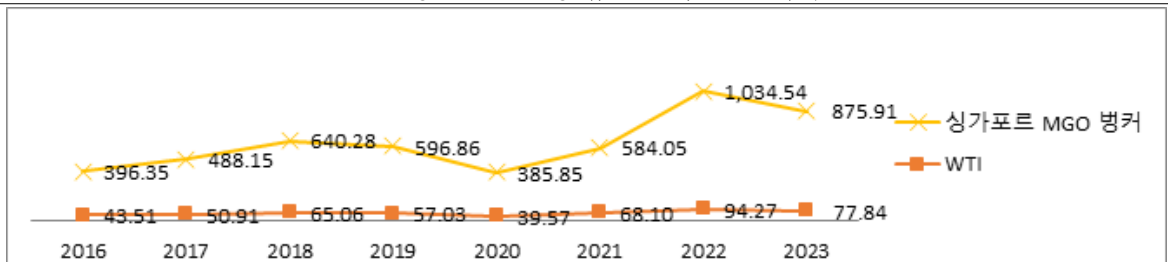
IEA는 세계석유수요 증분의 절반 가량이 중국(하루 90만배럴)에서 발생할 것으로 봤고, 서방의 제재 영향으로 1분기 러시아 생산이 하루 100만배럴 위축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공급과잉이 나타나겠으나 하반기에는 수요 증가와 러시아 생산 감소 등으로 공급 부족으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했다.

월 평균 싱가포르 벙커 가격



연 평균 MGO 벙커, Brent, WTI 가격





방콕 가다랑어 톤당 1,700 달러 유지

수요·공급 균형 상태...원어 공급 증가할 수도

태국 방콕의 냉동 가다랑어 1.8kg 이상 원어 가격이 3주 전과 같은 수준인 톤당 1,700 달러를 유지했다. 북미, 유럽에 참치캔을 수출하는 한 주요 가공업체 관계자는 최종제품 주문이 더딘 편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가다랑어 원어 가격은 2022년 평균 가격 대비 5% 낮은 수준이다. 통상적으로 연초에는 무역이 둔화되다가 몇 주 후 방콕 참치 공급과 가공업체가 받는 주문이 증가하면서 상황이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가지 염두에 둘 문제는 방콕 가다랑어 가격이 지난 수년간 급등했다는 점이다. 2019~2021년 동안 방콕 가다랑어 가격은 평균 1,320~1,360 달러 선이

였으나, 연료 및 비용 급등으로 인해 2022년 평균 가격은 무려 470 달러나 상승한 1,790 달러를 기록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방콕에는 현재 적정의 참치가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몇 주 동안 약간의 증가가 발생할 수도 있다. 12월 나우루협정당사국(PNA) 항구의 전채량 보고는 11월 대비 다소 증가한 6만 6,183톤을 기록했다. 전채량의 대부분은 방콕으로 향하고 있으며 앞으로 2주 안에 도착할 전망이다. 가격 변동 여부는 생산자 수요에 달려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3년 2월 3일자

12월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어획량 14% 감소

어획노력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서부태평양 선망선단의 12월 어업 노력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획량은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12월 중서부태평양 EEZ 및 공해에서의 전체 어업 노력은 11월 대비 4% 증가한 4,156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21년 12월과 비교하면 16%나 증가했다. PNA 수역에서의 선박조업일수제도(VDS) 사용 일수는 3,839일로 2015~2021년의 12월 평균 대비 10% 많다.

선망선 조업 수역은 여전히 파푸아뉴기니(PNG), 마이크로네시아(FSM) EEZ와 같은 서부 수역에 집중되었다. PNG 수역에서의 어업 노력은 전체에서 41%를 차지했다. 공해와 솔로몬제도 EEZ에서도 더 많은 조업이 진행되었다.

매우 높은 조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12월 선망선 전체 어획량은 가다랑어·황다랑어 어획량 감소로 인해 11월 대비 14% 감소한 10만 4,502톤을 기록했다. 수역으로 보면 어업 노력 증가가 반영되어, PNG, 솔로몬제도, 공해에서의 어획량이 증가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나우루협정당사국(PNA) 동부 수역에서의 참치 어획량은 2021년 이후 감소 추세이다. 키리바시는 세계 최대 EEZ 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어획량이 많지 않았다. 반면 PNG와 마이크로네시아 수역에서의 조업 수지는 증가 추세이다.

어획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PNA 항구에서의 참치 전채량은 월 평균 5만톤을 유지했다. 12월 선망선 전채량은 6만 6,183톤으로 3% 증가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2월 6일자



IOTC, dFAD 관리 조치 채택

EU 이의제기 조치 취할 예정

케냐 몸바사에서 3일간 진행 후 2월 5일 종료된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특별 세션이 선망어업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유형 FAD(dFAD)의 제한 조치 채택이라는 결정으로 끝났다.

인도네시아와 10개 연안국(케냐 제외)의 제안에는 2023년 말까지 IOTC 과학위원회에서 FAD 관리 조치에 대해 충분한 권고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2024년부터 dFAD를 7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총 72일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군소 도서국의 경우, dFAD 사용 금지는 공해에만 적용되며 자국 EEZ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제안에는 선박 1척당 허용되는 dFAD의 수를 첫 해에 300개에서 250개로, 2025년에는 200개로 단계적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제안에는 또한 dFAD 등록제(registry)도 포함된다. 국제채낚기재단(IPNLF)에 따르면, 이는 dFAD 사용의 투명성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각 당사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최대 1척의 지원선만이 허용된다.

프랑스와 스페인 등 EU 선단은 일반적으로 황다랑어 쿼터가 소진된 11~12월 동안 어업을 중단한다. 때문에 이번 조치는 선망선단의 활동이 많은 시기에 dFAD 운영이 정지됨을 의미한다.

인도양에는 모리셔스의 Princes 공장 2개, 세이셸의 IOT, TOG의 PFCI 공장까지 총 4개의 주요 EU 수출

가공공장이 있다. FAD 금지 기간 동안 이들의 원료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선망선단을 대표하는 Orthongel에 따르면 EU, 세이셸, 모리셔스, 한국, 코모로가 이번 안전에 강력하게 반대했으나 금지를 제안한 국가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EU 측은 현재 이러한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유럽어업인연합(Europeche) 참치 그룹의 Anne-France Mattlet 이사는 이번 조치로 인해 인도양 참치캔 가공공장이 경쟁력을 잃을 뿐 아니라, EU 선망선단이 수년 혹은 수개월 내로 수지가 맞지 않는 상황에 처해 인도양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Mattlet 이사는 수백 명의 어업 부문 노동자가 일자리를 상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선원은 기본급에 어획량의 일정 비율을 계산해 급여를 받으나, dFAD 금어기 동안 선망선 노동자들은 선상에 남아 기본급여만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해고되거나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

EU는 새 결의안에 이의제기(objection)를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이 12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하면, 결의안은 EU 선단에 적용되지 않게 된다. 강제력의 부족으로 인해, IOTC 회원국은 동의하지 않는 보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Atuna, 2023년 2월 7일자



IOTC FAD 금지 조치로 시장 혼란 우려

3개 RFMO 7~9월 금지기간 중첩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의 부유형 FAD(dFAD) 금지 조치로 인해, 글로벌 원어 공급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가다랑어황다랑어 가격 상승이 전례가 없을 수준 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의 부유형 FAD(dFAD) 금지 조치가 합의되었다. IOTC의 dFAD 금지 조치는 2024년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7월 1일부터 9월 11일 사이에 시행된다.

IOTC 금어기 조치가 시행되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의 FAD 금어기(7월 1일~9월 30일),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의 FAD 금어기(7월 29일~10월 8일)와 기간이 중첩된다.

일반적으로 중서부태평양 금어기 동안 태국 방콕 가공 업체는 공급 부족을 인도양산 참치 잉여분으로 충당했다.

에콰도르와 인도양의 참치캔 가공업체의 경우 인도양 EU 선단 어획 원어가 부족해서 다른 원산지 원어를 사용하면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해 EU 수출 시 이점을 상실하게 된다.

인도양에 새 금지 조치가 발효되면, 이는 인도양 가공 업체의 심각한 냉동 참치 원어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IOTC 데이터에 따르면 EU, 세이셸, 모리셔스 국적 선망선단은 2021년 38만 9,726톤의 참치를 어획했다. 산술적으로 72일간 금어기가 이뤄진다면 인도양의 주요 4개 가공공장에서 약 7만톤의 원어 공급 감소가 유발될 수 있다.

EU 원산지 규정에 따르면 인도양 국가 또는 EU 국가의 국적선에서 어획되고 인도양 국가의 공장에서 가공된 참치 제품은 EU 수입 시 면세가 적용된다. 다만, 인도양 캔 가공업체는 예외 조치(derogation measure)에 따라 중서부태평양에서 조업하는 대만, 한국, 나우루 등의 국적 선망선에서 어획된 '원산지 미적용(non-origin)' 어획물도 제한된 양을 구매해서 가공해도 면세 조치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이 예외 조치로도 인도양 금어기로 인한 부족분을 충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양 FAD 금어기가 시행될 경우, 타 RFMO의 금어기와 겹치는 기간 동안 원어 공급 및 가격 변동성에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이미 지난 수년간 현재 시행되는 금어기간인 7~9월(만타 10월)간 3개 주요 가공 허브에서 원어 부족으로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금어기 종료 이후에는 역으로 공급 과잉이 발생해 가다랑어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고, 선망선주들이 방콕, 만타 등 타 가공 허브로 선화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방콕에서도 WCPFC FAD 금어기 종료 이후 가공업체들이 원어 가격 하락을 염두에 둔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가다랑어가 한꺼번에 글로벌 공급망으로 몰려 올 경우,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매우 어려운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3년 2월 8일자,

SeafoodSource, UndercurrentNews, 2023년 2월 15일자



John Burton, IOTC dFAD 논의 앞두고 주목

MSC, 선망어업 관련 논란 배후 인물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특별 세션의 부유형 FAD(dFAD) 논의를 앞두고, 스페인 언론 Faro de Vigo가 국제채낚기재단(IPNLF)과 재단의 공동 설립자인 John Burton을 유럽 선망선단에 대한 주요 견제자로 지목했다.

IOTC 특별 세션 첫 날, 케냐, 몰디브 및 10개 연안국은 선망선 1척당 사용 가능한 dFAD를 150대로 감축하는 전례 없는 안건을 제안했다가 철회했다. Burton이 설립한 2개 재단이 제안에 지지를 표했고, Faro de Vigo는 케냐와 몰디브가 이들의 영향을 받는 국가라고 주장했다.

영국 참치 사업가인 Burton은 약 30년간 참치 채낚기 산업에 종사한 인물로, 2009년 인도양 채낚기 어획 참치를 영국에 유통하는 수입업체 World Wise Foods를 설립했고, 현재까지 CEO로 재임하며 영국의 채낚기 참치 무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 Burton은 2011년 IPNLF를 공동 설립한 후 2020년까지 의장직에 재임했다. 그는 또한 세계참치연맹(GTA)의 운영위원회의 일원이기도 하다.

Burton은 태국, 몰디브,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채낚기 어업을 통해 영국 참치캔 시장에 약 11만톤의 상품을 공급한다. Burton에게 있어 저렴한 MSC 인증 참치캔 공급 증가는 직접적 위협이 되는 셈이다.

Burton의 회사인 World Wise Foods는 2017년 Princes사가 MSC 인증 참치캔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과대 선전을 한다는 이유로 네덜란드 광고코드위원회(Advertising Code Foundation)에 제소한 적이 있다.

Burton은 2017년 PNA 스쿨조업 선망 어업의 MSC 재인증을 저지하기 위해 IPNLF 및 다수 NGO가 추진한 On The Hook 캠페인 설립을 주도했다. 2018년, 이 그룹은 MSC 인증 어획물과 비인증 어획물이 함께 운반

되는 문제를 공론화해 영국 하원 청문회까지 확대시킨 바 있다. 또한 Burton의 회사인 World Wise Foods는 2018년, MSC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기구인 Make Stewardship Count의 설립에 동참했다.

2020년 한 PNA 옵서버가 MSC 인증 어업 항차 중 원인불명의 이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영국 NGO HRAS는 MSC 인증 태평양 선망선에서 발생한 5건의 옵서버 사망 사건과 이를 연관짓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어업의 인증 당사자인 PNA와 MSC는 이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Burton은 이 보고서 작성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지목되었다. Burton은 이를 부인했으나, HRAS는 그와 긴밀한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PNA는 2021년 FAD 어업 및 눈다랑어 어업 MSC 인증 추진 당시 1인 NGO인 CTTF의 반대에 부딪친 바 있다. 이 NGO는 IPNLF, On the Hook, Burton의 법률 변호인단의 지원을 받았다. 결국 PNA는 눈다랑어 어업과 FAD 어업에서 MSC 어업표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일부 타 어업에서 FAD눈다랑어 어업 MSC 인증을 취득했으나, CTTF는 이에 대해 어떠한 움직임도 취하지 않았다.

2020년 5월, Burton은 SFACT라는 이름의 인도양 연안국 어업 보호 단체를 설립했다. 이 단체는 IOTC 특별 세션을 앞두고 IPNLF, Blue Marine Foundation과 함께 유럽 및 타국 선망선단의 dFAD 관리 부족을 주장하며, 케냐가 제안한 dFAD 감축안 지지를 표명했다.

지난 2월 2일, IPNLF는 100여 개 단체와 함께 EU 위원회에 '인도양의 상업적 유럽 참치선단이 사용하는 fFAD에 관련된 환경적 악영향'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Atuna, 2023년 2월 7일자



日 1월 도요스시장 냉동 눈다랑어 가격 하락 kg당 1,237 엔

일본 도쿄 도요스시장의 1월 냉동 눈다랑어 대형(40kg 이상) 상장 마릿수는 8,459마리(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를 기록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행동제한 해제 및 음식점 수요 증가로 인해 2021년(7,681마리)과 2022년(7,245마리)보다 증가했다.

가장 많은 수량(5,448마리)을 기록한 서경·태평양산의 증가(中値, 가장 거래량이 많은 가격) 평균 공표치는 kg당 1,237 엔이다. 2022년 12월 가격인 kg당

1,303엔에 비해 하락했다.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는 연말에 양품 비중이 높았다는 점, 1월의 추위로 인해 회 수요가 둔화되었다는 점, 유럽 수요 저하로 인해 대만, 한국, 중국 등이 일본행 필렛 수출을 늘리려 했다는 점, 3월 결산인 회사들이 가격이 아직 높은 시점에 판매량을 늘리려 했다는 점 등이 지목되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2월 15일자

日 도요스시장 2022년 냉동 눈다랑어 상장 6% 감소 2022년 가격 kg당 1,239 엔, 12월 1,303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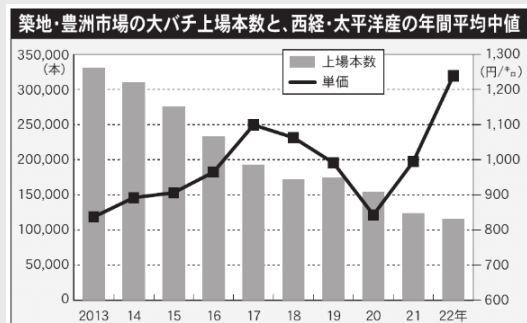
일본 도쿄 도요스시장의 2022년 냉동 눈다랑어 대형(40kg 이상) 상장 마릿수는 11만 6,449 마리로, 전년 대비 6% 감소했다.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20%까지 감소한 바 있다.

다만, 단가는 1년 동안 우상향 추세가 계속되었다. 12월 도요스시장 냉동 눈다랑어의 주가 되는 서경·태평양산의 증가(中値, 가장 거래량이 많은 가격)는 kg당 1,303 엔으로 11월 가격인 kg당 1,292엔 대비 상승했다.

2022년 전체를 통틀어 증가는 kg당 1,239 엔으로, 전년 대비 25% 상승했다.

2022년에는 고유가로 인해 외국선뿐만 아니라 일본 자국선의 조업일수가 감소했다. 단가가 높은

참다랑어나 남방참다랑어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나, 눈다랑어나 황다랑어는 그 영향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엔저 및 미국·유럽과의 매입 경쟁으로 인해 상장 마릿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막대: 상장 마릿수 / 선: kg당 단가)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1월 16일자



日 2022년 1~12월 냉동 참치류 수입 통계 발표

'22년 한국산 눈다랑어 수입량 1,749톤

(단위: 톤)

| 어종·국가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누계 | |
|--------|------|-------|-------|-------|-------|-------|-------|-------|-------|-------|-------|-------|-------|--------|
| 날개다랑어 | 한국 | 113 | 6 | 16 | 96 | 44 | 98 | 158 | 179 | 58 | 184 | 126 | 43 | 1,121 |
| | 대만 | 625 | 298 | 49 | 951 | - | 635 | 412 | 804 | 3,200 | 2,664 | 1,916 | 1,137 | 12,691 |
| | 바누아투 | - | 1 | 71 | 522 | 436 | 301 | - | - | 5 | 575 | 82 | 285 | 2,278 |
| | 기타 | 15 | 15 | - | 2 | 26 | 146 | 45 | 315 | 544 | 596 | 770 | 121 | 2,595 |
| | 소계 | 753 | 321 | 137 | 1,569 | 506 | 1,179 | 614 | 1,298 | 3,807 | 4,020 | 2,894 | 1,585 | 18,683 |
| 황다랑어 | 한국 | 221 | 210 | 596 | 513 | 539 | 163 | 331 | 396 | 192 | 472 | 323 | 124 | 4,080 |
| | 중국 | 47 | 284 | 120 | 430 | 550 | 553 | 207 | 165 | 108 | 145 | 367 | 317 | 3,293 |
| | 대만 | 603 | 1,031 | 1,318 | 2,425 | 1,603 | 1,601 | 617 | 1,183 | 937 | 1,524 | 1,518 | 1,704 | 16,064 |
| | 팔라온 | 123 | - | 131 | 493 | 69 | 50 | - | 98 | 346 | - | 29 | 29 | 1,368 |
| | 인니 | - | - | - | - | - | - | 25 | - | 14 | 16 | 109 | 208 | 372 |
| | 바누아투 | 148 | 24 | 72 | 103 | 248 | 249 | 381 | 390 | 330 | 58 | 46 | 228 | 2,277 |
| | 파지 | 23 | 50 | - | - | - | 68 | 62 | 9 | 23 | 18 | 85 | - | 338 |
| | 카리바시 | 29 | - | - | - | 101 | 135 | 33 | 138 | 67 | - | 13 | - | 516 |
| | 미셜 | 551 | - | 149 | 50 | 51 | 50 | - | 50 | 68 | 146 | 280 | 57 | 1,452 |
| | 기타 | 564 | 587 | 568 | 1,316 | 410 | 815 | 555 | 504 | 692 | 1,287 | 1,848 | 1,757 | 10,903 |
| | 소계 | 2,309 | 2,187 | 2,954 | 5,329 | 3,573 | 3,685 | 2,210 | 2,933 | 2,777 | 3,665 | 4,617 | 4,424 | 40,663 |
| 눈다랑어 | 한국 | 11 | 30 | 27 | 113 | 412 | 299 | 255 | 160 | 26 | 228 | 127 | 61 | 1,749 |
| | 중국 | 177 | 467 | 502 | 592 | 339 | 1,409 | 574 | 410 | 711 | 292 | 145 | 479 | 6,097 |
| | 대만 | 1,372 | 2,158 | 2,438 | 4,084 | 1,632 | 3,329 | 1,060 | 2,671 | 1,616 | 2,206 | 1,501 | 1,762 | 25,829 |
| | 인니 | - | - | - | - | - | - | - | - | - | 21 | 16 | 19 | 56 |
| | 세이셸 | 103 | 874 | 310 | 792 | 526 | 671 | 177 | 353 | 96 | 384 | 633 | 272 | 5,191 |
| | 바누아투 | 138 | 318 | 47 | 629 | 490 | 790 | 114 | 286 | 71 | 472 | 94 | 348 | 3,797 |
| | 기타 | 135 | 32 | 207 | 110 | 239 | 156 | 537 | 27 | 229 | 42 | 59 | 52 | 1,825 |
| | 소계 | 1,937 | 3,880 | 3,531 | 6,319 | 3,638 | 6,653 | 2,716 | 3,906 | 2,749 | 3,645 | 2,574 | 2,992 | 44,540 |
| 남방참다랑어 | 한국 | 449 | - | - | - | - | - | - | - | - | 265 | 640 | - | 1,354 |
| | 대만 | 95 | 5 | - | 2 | 4 | 1 | - | 8 | 89 | 490 | 198 | 142 | 1,034 |
| | 호주 | - | - | - | - | - | - | 1,547 | 1,243 | 2,949 | 375 | 751 | - | 6,865 |
| | 소계 | 544 | 5 | - | 2 | 4 | 1 | 1,547 | 1,251 | 3,038 | 1,130 | 1,589 | 142 | 9,253 |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2월 3일자



日 도쿄 시장 2019~2022년 냉동참치류 취급실적

눈다랑어 2022년 1만 30톤, kg당 1,378 엔 外

도쿄 시장(도요스, 아다치, 오타)

(단위: 톤 / kg당 엔)

| | 참다랑어 | | 남방참다랑어 | | 눈다랑어 | | 황다랑어 | | 참치류 합계 | |
|------------|-------|-------|--------|-------|--------|-------|-------|-------|--------|-------|
| | 수량 | 단가 | 수량 | 단가 | 수량 | 단가 | 수량 | 단가 | 수량 | 단가 |
| '19년 합계 | 3,503 | 3,191 | 3,882 | 1,987 | 15,255 | 1,103 | 1,914 | 865 | 24,846 | 1,518 |
| '20년 합계 | 3,019 | 2,948 | 3,424 | 1,734 | 14,239 | 941 | 2,061 | 888 | 22,893 | 1,321 |
| '21년 1월 | 156 | 2,799 | 234 | 1,576 | 652 | 990 | 54 | 1,179 | 1,103 | 1,382 |
| '21년 2월 | 192 | 2,784 | 204 | 1,683 | 905 | 945 | 109 | 1,049 | 1,421 | 1,310 |
| '21년 3월 | 278 | 2,773 | 271 | 1,717 | 1,134 | 972 | 148 | 965 | 1,845 | 1,354 |
| '21년 4월 | 363 | 2,662 | 254 | 1,764 | 1,209 | 1,010 | 179 | 938 | 2,017 | 1,397 |
| '21년 5월 | 287 | 2,689 | 198 | 1,797 | 971 | 1,058 | 97 | 1,083 | 1,567 | 1,452 |
| '21년 6월 | 371 | 2,683 | 223 | 1,842 | 879 | 1,083 | 198 | 992 | 1,682 | 1,527 |
| '21년 7월 | 375 | 2,775 | 231 | 1,912 | 917 | 1,190 | 123 | 1,046 | 1,659 | 1,638 |
| '21년 8월 | 275 | 3,046 | 216 | 1,902 | 1,022 | 1,205 | 185 | 1,038 | 1,712 | 1,570 |
| '21년 9월 | 237 | 3,202 | 241 | 1,917 | 816 | 1,274 | 133 | 1,080 | 1,438 | 1,682 |
| '21년 10월 | 254 | 3,094 | 293 | 1,956 | 977 | 1,294 | 190 | 1,088 | 1,727 | 1,648 |
| '21년 11월 | 248 | 3,494 | 340 | 2,019 | 1,047 | 1,343 | 167 | 1,121 | 1,816 | 1,742 |
| '21년 12월 | 422 | 3,658 | 512 | 2,102 | 1,233 | 1,330 | 192 | 1,075 | 2,375 | 1,890 |
| '21년 합계 | 3,458 | 2,981 | 3,218 | 1,878 | 11,762 | 1,146 | 1,774 | 1,045 | 20,360 | 1,565 |
| '22년 1월 | 177 | 3,587 | 241 | 1,982 | 637 | 1,304 | 96 | 1,244 | 1,161 | 1,786 |
| '22년 2월 | 211 | 3,442 | 189 | 1,938 | 680 | 1,307 | 155 | 1,163 | 1,246 | 1,745 |
| '22년 3월 | 249 | 3,340 | 243 | 2,071 | 987 | 1,332 | 105 | 1,350 | 1,600 | 1,756 |
| '22년 4월 | 386 | 3,572 | 244 | 2,310 | 1,288 | 1,291 | 270 | 1,195 | 2,206 | 1,790 |
| '22년 5월 | 325 | 3,529 | 180 | 2,467 | 971 | 1,350 | 165 | 1,284 | 1,658 | 1,890 |
| '22년 6월 | 360 | 3,636 | 235 | 2,496 | 917 | 1,416 | 127 | 1,343 | 1,654 | 2,045 |
| '22년 7월 | 295 | 3,702 | 242 | 2,529 | 942 | 1,405 | 82 | 1,505 | 1,580 | 2,011 |
| '22년 8월 | 238 | 3,985 | 216 | 2,708 | 793 | 1,437 | 103 | 1,438 | 1,368 | 2,081 |
| '22년 9월 | 239 | 3,997 | 256 | 2,709 | 894 | 1,443 | 182 | 1,423 | 1,592 | 2,025 |
| '22년 10월 | 294 | 3,914 | 304 | 2,623 | 947 | 1,438 | 203 | 1,259 | 1,762 | 2,035 |
| '22년 11월 | 253 | 4,101 | 323 | 2,616 | 973 | 1,442 | 127 | 1,364 | 1,687 | 2,060 |
| '22년 1~11월 | 3,027 | 3,704 | 2,672 | 2,422 | 10,030 | 1,378 | 1,615 | 1,304 | 17,513 | 1,932 |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1월 16일자



日 2018~2022년 참치류 지출금액 및 구입수량

2022년 평균 394 엔, 135g 外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평균 |
|------------------|------|-----|-----|-----|-----|-----|-----|-----|-----|-----|-----|-----|-----|-----|
| 지 출 금 액 | 2018 | 393 | 388 | 452 | 431 | 444 | 434 | 411 | 439 | 376 | 397 | 358 | 682 | 434 |
| | 2019 | 407 | 351 | 430 | 418 | 453 | 418 | 402 | 451 | 408 | 401 | 384 | 685 | 434 |
| | 2020 | 404 | 421 | 456 | 421 | 474 | 451 | 420 | 499 | 407 | 384 | 414 | 670 | 452 |
| | 2021 | 415 | 434 | 465 | 433 | 507 | 467 | 444 | 509 | 409 | 422 | 401 | 650 | 463 |
| | 2022 | 396 | 419 | 440 | 411 | 420 | 403 | 386 | 411 | 358 | 350 | 340 | - | 394 |
| 구 입 량 | 2018 | 148 | 163 | 183 | 166 | 173 | 165 | 156 | 152 | 140 | 146 | 136 | 203 | 161 |
| | 2019 | 146 | 138 | 166 | 143 | 179 | 173 | 156 | 186 | 150 | 149 | 140 | 204 | 161 |
| | 2020 | 135 | 154 | 184 | 170 | 176 | 169 | 171 | 168 | 159 | 153 | 163 | 223 | 169 |
| | 2021 | 148 | 152 | 171 | 156 | 195 | 174 | 189 | 195 | 152 | 155 | 140 | 173 | 167 |
| | 2022 | 145 | 157 | 156 | 140 | 142 | 145 | 136 | 119 | 128 | 111 | 105 | - | 135 |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1월 16일자

日 12월 냉동 참다랑어 수입 단가 1,096 엔

전년 대비 15% 상승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참치류의 2022년 12월 수입실적은 신선냉장류 수입량 470톤(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 수입액 11억 8,200만 엔(16% 증가), 냉동 수입량 1만 6,550톤(7% 감소), 수입액 283억 8,700만 엔(15% 증가), 가공품 수입량 3,084톤(29% 감소), 수입액 25억 3,400만 엔(6% 감소)를 기록했다.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미, 내장 제거)의 12월 수입량은 2,992톤(28% 감소)이다. 2022년 전체 수입

량은 4만 4,541톤으로 2021년 대비 4% 증가했다.

냉동 눈다랑어 수입의 주를 이루는 대만산의 CIF(운임·보험료 인도조건) 기준 수입단가는 이전 고점이었던 9월의 1,092 엔보다 소폭 상승한 1,096 엔(15% 상승)을 기록했다. 대만산 눈다랑어 수입 단가는 9월 고점을 기록한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연초부터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2월 3일자



태국, 2022년 냉동 참치 원어 13억 달러 수입 수량 68만 8,224톤...4% 증가

세계적으로 냉동 참치 원어 가격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 가공업체의 2022년 냉동 참치 원어 수입액은 13억 4,000만 달러로 다소 증가했다.

2022년 태국의 주요 상업 참치종 원어 수입량은 68만 8,824톤으로 2021년 대비 4% 증가했다. CFR 기준 톤당 평균 가격은 1,948 달러로, 2021년 대비 26%, 약 400 달러나 상승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태국 가공업체들의 가다랑어 수입량은 전년 대비 9%나 증가한 54만 6,723톤이었다. 톤당 평균 가격은 1,790 달러이다. 이는 2018년의 58만 5,277톤에 이어 지난 5년간 두 번째로 많은 수입량이다. 반면 황다랑어, 날개다랑어, 눈다랑어 수입은 크게 감소했다.

대만산 수입량은 12만 5,806톤으로, 가장 높은 비중인 전체의 18%를 차지했다. 그러나 전년도 수입량과 비교하면 2% 감소했다.

2위인 마이크로네시아산 수입량은 9만 3,754톤으로,

2021년 대비 16%(약 1만 8,000톤) 감소했다. 마이크로네시아 국적선 척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이고, 어획량도 증가하고 있다.

3위인 나우루산 수입량은 12% 증가했고 4위인 한국산 수입량은 9% 감소했다. 일본산 수입량은 77% 감소하며 주요 원산지 중 가장 많이 하락했다.

태국이 대만, 마이크로네시아, 나우루, 한국, 바누아투, 몰디브, 키리바시, 마셜제도, 일본 외의 '기타'로 분류된 국가들에서 수입한 참치의 양은 2022년에 66%나 증가했다.

인도양 조업 선단은 증서부태평양산 참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평소보다 많은 양의 참치를 태국에 운반했다. 스페인 선단은 2022년 총 2만 379톤을 운반해 '기타' 범주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미국 선단의 수출량은 불과 167톤으로, 2021년 수출량인 9,173톤 대비 대폭 감소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3년 1월 31일자

美 선망선단, 아메리칸사모아 양륙 허가 요청

FAD 금어기 회피 목적

미국 선망선 사업자들이 아메리칸사모아 정부에 양륙 허가 발급을 요청했다. 이는 주로 스타키스트 참치캔 공장으로 참치를 운반하는 미국 선박에 적용된다.

증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는 군소도서개발도상국(SIDS)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FAD 금어기에 관한 여러 예외 조치를 제공한다. 그러나 미국 선망선단은 매년 3개월간 실시되는 FAD

금어기로 인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만약 이 금지 조치를 회피할 수 있다면, 아메리칸사모아의 참치캔 가공업체는 연중 계속해서 원어를 공급받게 되어 수익성에 큰 이점을 얻게 된다.

안전에 따르면 허가료는 500 달러이다. 당국은 법안을 12월 WCPFC 연례회의 전에 시행하기를 원한다.

* 기사 출처: Atuna, 2023년 2월 6일자



태국 2022년 가다랑어 원어 수입량 증가

54만 6,723톤...9% 증가

2022년 태국의 가다랑어 수입량은 전체 참치류 수입량(68만 8,824톤)의 79%인 54만 6,723톤을 기록했다. 이전의 전체 참치류 중 가다랑어 수입 비중은 2021년 76%, 2020년 74%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대만산 수입량은 2021년과 거의 동일한 9만 8,427톤이었으나 수입 단가는 약 30% 상승한 톤당 1,786 달러를 기록했다.

비중 2위인 마이크로네시아산 수입량은 2021년 대비 약 1만 3,000톤 감소한 8만 646톤이며, 수입 단가는 대만산과 거의 비슷한 톤당 1,778 달러이다.

비중 3위인 나우루산 수입량은 전년 대비 17% 증가

한 6만 4,672톤을 기록했다.

태국이 다른 모든 태평양 도서국으로부터 수입한 가다랑어의 양은 증가했다. 투발루산은 전년 대비 무려 213%나 증가한 2만 9,043톤을 기록하며 마셜제도산과 일본산을 넘어서 수입 비중 상위 8위를 기록했다.

비중 4위인 한국산 수입량은 전년 대비 11% 감소한 4만 8,840톤이며, 수입 단가는 1,807 달러이다.

일본산은 전년 대비 무려 80%나 감소한 6,566톤을 기록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1/3 수준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3년 2월 1일

태국 2022년 황다랑어 수입량 하락

8만 9,446톤 수입

2022년 태국의 냉동 황다랑어 원어 수입량은 8만 9,446톤으로, 2021년 대비 7%, 2020년 대비 약 10% 감소했다. 톤당 평균 가격은 24% 상승한 톤당 2,214 달러이다.

비중 1위인 대만산 수입량은 1만 4,008톤으로 4% 감소했고, 평균 가격은 톤당 2,331 달러로 전체 평균 2,214 달러 대비 약간 높은 수준이다. 비중 2위인 마이크로네시아산 수입량은 2021년 대비 21% 감소한 1만 258톤이나, 2020년 수입량보다는 여전히 많다.

비중 3위 한국산 수입량은 11% 증가한 1만 742톤으로, 비중 상위 10개국 중 유일하게 전년 대비 증가했다. 평균 가격은 타국 대비 경쟁력 있는(낮은) 수준인 톤당 2,011 달러이다.

중국산 수입량은 전년 대비 66% 감소한 1,248톤으로,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평균 가격은 41% 상승한 2,080 달러이나, 상위 10개국 중 중위권이다.

2015년 이후 태국 황다랑어 수입량은 연간 12만톤 수준이었으나 2018년 9만 1,148톤으로 감소한 후 2019년에는 근 10년간 최저 수준인 8만 3,587톤을 기록했다. 2020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한 상온 보관 식품 구매 증가에 힘입어 9만 8,877톤으로 증가했다.

2022년 황다랑어 수입량은 전체 원어 수입의 12.9%를 기록했다. 2021년의 비중은 14.5%, 2019년의 비중은 14%였다.

* 기사 출처: Atuna, 2023년 2월 3일자



태국, 2022년 참치캔 수출량 증가

48만 4,240톤 수출

2022년 태국은 전년 대비 9% 증가한 48만 4,240톤의 참치캔을 수출했다. 평균 수출 가격은 전년 대비 20% 상승한 톤당 4,692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 4분기(10~12월) 동안, 태국은 12만 737톤의 참치캔을 수출해 5억 6,65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이러한 수출액은 2022년 3분기 대비 1,678만 달러 많은 수준이며, 톤당 평균 가격이 139 달러나 상승한 것에서 기인했다.

비중 1위인 미국의 수입량은 9만 7,136톤으로 18% 증가했다. 미국은 4분기 동안 2만 5,133톤의 참치캔을 수입하며 회복세를 이어갔다. 미국의 2022년 수입 가격은 2021년 대비 16% 상승했다.

비중 2위인 이집트의 수입량은 2020년 수입량에 근접한 5만 7,839톤으로, 2021년 대비 19% 감소했다. 반면 비중 3위 리비아의 수입량은 2021년 대비 74%나

증가한 3만 3,865톤으로, 2020년 수준을 회복했다. 이는 리비아가 인접국 이집트를 허브로 사용하는 대신 직접 수입을 선호했음을 암시한다. 양국의 평균 수입 가격은 모두 상승했으나, 2021년 톤당 1,017 달러 선이었던 수입 가격 차이가 톤당 1,277 달러로 커졌다.

아랍에미리트(UAE)의 2022년 수입량은 2만 2,362톤, 수입 가격 톤당 5,010 달러로 모두 1/4 가량 상승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등 타 아랍 지역 국가의 수입량도 모두 증가했다. 이집트, 예멘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랍 지역 수입량은 16만 4,932톤으로 증가했다.

비중 3위 호주 수입량은 3만 9,165톤으로 19% 증가했고, 평균 수입 가격은 톤당 5,444 달러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 기사 출처: Atuna, 2023년 2월 6일자

키리바시, 피닉스제도 보호구역 재개방

1월부터 재개방 예정

해양보호구역(MPA)이 가다랑어, 눈다랑어 자원 보존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후, 키리바시 정부는 1월부터 피닉스제도 보호구역(PIPA)에 대한 참치 어업을 재개방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논문의 수석 저자이자 태평양공동체(Pacific Community)의 수석 수산과학자 John Hampton 박사는 가다랑어, 눈다랑어 등이 태평양 열대·아열대 수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Hampton박사에 따르면 참치 유생(Larvae)이 표

층수에 떠다니며 광범위하게 이동하기 때문에 특정 구역의 차단만 보존 효과가 크지 않다.

해당 연구의 공동 저자인 키리바시 수산해양자원 개발부의 Kaon Tiamere는 당국이 지난 8년 동안 PIPA를 지정하면서 키리바시의 주요 수입인 해외 참치 선단 입어로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Tiamere는 이번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PIPA의 참치 보존 효과가 미미하다면, 이러한 손실을 감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1월 20일자



한국 2021년 WCPO 선망선 어획량 감소 대만은 증가

최근 발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중서부태평양 수역 참치 어획량은 261만 3,586톤이다. 이 중 참치선망선 어획량이 70%를 차지했다. 참치선망선 어획량은 2019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0년 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2021년 한국 어선의 어획량은 감소하고 대만은 증가했다.

한국 선망선 23척의 어획량은 23만 255톤으로 10년 내 최저 수준이다. 최고점을 기록한 2019년의 31만 4,823톤과 비교하면 27%나 감소했다. 선망선 가다랑어 어획량은 17만 3,185톤으로 전년 대비 2만 9,000톤 감소했다. 반면, 황다랑어 어획량은 5만 72톤으로 전년 대비 약 15% 증가했으며 5년 내 두 번째로 많았다.

2021년 한국 선망선 조업 노력은 대부분 키리바시, 마셜제도,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마이크로네시아, 투발루 수역에 집중되었다.

2021년 대만 선망선 29척의 어획량은 21만 5,713톤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2020년이 지난 10년간 어획량 최소년도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러한 증가폭은 인상적이다. 가다랑어 어획량은 15만 4,592톤으로 전년 대비 2만톤 증가했다. 황다랑어 어획량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5만 1,039톤으로 20년 내 최고치이다. 눈다랑어 어획량은 전년 대비 1,200톤 증가한 1만 49톤이다.

2021년 대만 선망선 조업 노력은 대부분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공해에 집중되었다.

* 기사 출처: Atuna, 2023년 1월 20일자, 24일자

이집트 달러 위기로 인해 태국 참치업계 일부 영향 유로화 강세로 인한 EU 구매력 강화로 상쇄

타이유니온 전 임원이자 중동 시장 전문가인 Arnab Sengupta에 따르면, 중동 최대 참치캔 시장이자 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이집트의 경제위기로 인해 태국 참치캔 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집트는 계속되는 화폐 평가절하로 인해 지난 1년간 통화 가치가 50%나 하락하는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태국산 참치캔 주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Sengupta는 이집트 정부가 기업의 외화 인출을

제한했기 때문에 이집트 구매자들이 이전에 주문한 태국산 참치캔 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Sengupta에 따르면 최근 수개월 간 이집트의 태국산 참치캔 구매 70%가 취소되었다.

다만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이집트 문제는 태국 참치캔 가공업체 및 공급업체에게 주요 이슈가 아니며, 오히려 유로화 강세로 EU 시장의 구매력이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1월 26일자



마주로 참치 전재 건수 2~3분기 반등 전망

2021년 297건, 2022년 251건

마셜제도 해양자원국(MIMRA)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마셜제도 마주로에서 441건의 전재를 통해 35만 9,000톤의 냉동 참치가 전채되었다. 그러나 2020년에는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 전채 건수 176건, 전채량 11만 8,000톤에 그쳤다. 전채 건수는 2021년 297건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에 251건으로 감소했다.

Glen Joseph MIMRA 국장은 2020년 급락에도 불구하고 작업량이 회복되고 있다며, 1월 상황은 아직 좋지 못하나 운반선의 활동이 매년 2, 3분기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Joseph 국장은 또한 엘니뇨, 라니냐와 같이 운반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NOAA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12월에 라니냐는 약화되기 시작했다. 라니냐는 태평양의 중앙-동부 적도 수온이 광범위하게 하락하는 현상으로, 1월 초 예보에 따르면 라니냐가 3~5월까지 끝날 가능성은 82%이다.

라니냐 현상은 중서부태평양 해수면 온도를 평균치보다 높게, 해수면 높이를 평상시보다 높게 만든다. 이로 인해 라니냐 발생 시 보통 먹이 사슬이 풍부해져 동부태평양의 양륙량이 증가하고 참치 등의 원양 어류 가용량이 증가하게 된다. 라니냐가 끝나면 중서부태평양의 어획량이 증가한다.

* 기사 출처: Atuna, 2023년 1월 27일자

세이셸 해양공간계획 완료 단계

EEZ(14만km²) 전체 대상, MPA 41만km² 설정

세이셸 고위 공무원에 따르면 세이셸 해양공간계획(SMSP)의 최종 작업이 거의 완료되어 올해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SMSP는 세이셸 해양의 지속가능 및 장기적인 활용과 건강을 계획하고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SMSP는 13만 5,000km²에 달하는 세이셸 EEZ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블루 이코노미를 지원할 것이다.

SMSP는 서인도양 최초의 포괄적인 해양공간계획

이 될 것이다. 또한, 노르웨이 다음으로 해양공간계획을 적용하는 두 번째로 큰 해양 구역이 될 것이다.

이제 해야 할 작업은 해양공간계획 거버넌스 옵션 설정, 해양보호구역(MPA)에 대한 규정 승인, SMSP 서명승인 후 법제화가 남아있다.

SMSP는 참치, 해초, 산호 등 서식 주요 구역이 포함된 41만km² 이상의 MPA 설정을 포함한다.

* 기사 출처: Seychelles News Agency, 2023년 1월 13일자



에콰도르 만타 가다랑어 가격 1,750 달러로 하락 veda 종료 영향

동부태평양의 금어기(veda)가 1월 19일 종료되면서 에콰도르 만타의 가다랑어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 에콰도르 만타의 1.8kg 이상 냉동 가다랑어 원어 가격은 톤당 1,750 달러이다. IATTC 금어기로 인해 냉동 가다랑어 원어 양륙이 적었던 2022년 11~12월 가격과 비교하면 약 150 달러 하락한 수준이다.

동부태평양 금어기는 2022년 11월 9일에 시작해 2023년 1월 19일까지 계속되었다. 멕시코 선단의 대부분, 에콰도르 선단의 약 절반이 금어기 대상이었다.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들에 따르면 가다

랑어 원어 구매는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어업자들은 올해 어획량에 대해 긍정적이다. 그러나 상황을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 금어기 종료 직전 주의 선망선 참치 어획량은 적은 편이었다.

참치캔 가공업체들은 지난 수개월 간 FAD로 어획한 참치의 양이 많았고, 그 결과 선주들이 더 많은 원어를 운송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구매자들도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3년 1월 26일자

TUNACONS,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MSC 인증 추진 에콰도르 어업 그룹

에콰도르 어업 그룹 TUNACONS가 MSC 인증 범위를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어업까지 확장하기 위해 재평가를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TUNACONS는 2년 전에도 같은 어업을 대상으로 인증 취득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자원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무산되었다. TUNACONS는 2022년 황다랑어 어업을 대상으로 MSC 인증을 취득했다.

2022년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의 자원 평가를 통해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자원은 녹색 등급을 받을 만큼 건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TUNACONS는 가다랑어 어업 MSC 인증을 다시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적합성평가기관(CAB)은 지난 1월 20일 발표한 의견초안보고서(ACDR)에서 가다랑어의 MSC 원칙1

에 대한 초기 점수를 80점 이상으로 평가했다. 평가 단위(UoA)는 총 7개로 이 중 6개는 에콰도르, 파나마, 미국 국적 선망선 가다랑어 스쿨(free sets) 및 FAD 어업이다. 마지막 1개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 소형 선망선단의 가다랑어 스쿨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TUNACONS 선단의 척당 용적량은 270톤에서 2,304톤 사이이며, 일반적으로 동부태평양 적도 구역의 공해에서 조업한다. TUNACONS의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어획량의 총합은 IATTC 전체 어획량의 약 22%를 차지한다.

이해관계자들은 이견이 있을 경우 2월 19일까지 이를 제출해야 한다.

* 기사 출처: Atuna, 2023년 1월 26일자



2021년 대서양 참치 어획량 14% 감소

가다랑어·황다랑어 감소, 참다랑어 증가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최신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주요 상업용 참치 어종 어획량은 47만 159톤으로 전년 대비 14%나 급감했다. EU 국적 선단(선망, 연승, 채낚기, 외줄낚시, 트롤, 기타)은 전체 어획량 중 약 절반을 차지한다. ICCAT에 따르면 EU 국적선단은 대서양과 지중해에서 약 20만 5,814톤을 어획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가다랑어와 황다랑어의 경우, 참치 선망선이 세네갈 등 서부 아프리카 국가 연안과 인접한 동대서양(ATE)에서 가장 좋은 어획량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다랑어와 날개다랑어는 지난 수년간 하락 추세였다. 2018년 ATE 선망선 가다랑어 어획량은 28만 3,169톤으로 매우 좋은 한 해였으나,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 추세이다. 2021년 ATE 수역 어획량은 19만 6,987톤으로 2018년 대비 30%나 감소했다. 서부 수역(ATW) 어획량은 같은 기간 14% 감소했다.

2020년 ATE 어장에서는 황다랑어가 예외적으로 12만 4,675톤이나 어획되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약 10년 만의 최저치에 근접한 8만 3,820톤으로 급감했

다.

2021년에는 여러 국가의 연승선단이 동·서대서양, 지중해 등의 수역에서 전년 대비 13% 증가한 5만 9,281톤의 날개다랑어를 어획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주로 남대서양 공해와 가봉, 앙골라, 나미비아 등 아프리카 국가 EEZ에서 좋은 어획량을 기록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EU 국적선단(주로 스페인, 프랑스)은 날개다랑어의 주요 공급자로, 전체 어획량의 약 절반을 어획했다.

참다랑어 어획량은 효과적인 보존 조치로 인해 수년에 걸쳐 증가했다. 2021년 대서양 동부·서부, 지중해에서의 참다랑어 어획량은 3만 7,378톤으로, 이는 엄격하게 시행된 쿼터제를 통해 자원이 회복된 결과이다. 이러한 어획량은 지난 15년간 최고치이다.

황다랑어 어획량 감소로 갈리시아(스페인 서북부 자치 지방) 항구에서의 하역량이 감소했다. 이는 황다랑어 캔, 병, 스테이크를 생산하는 이 지역의 참치 가공공장에 영향을 미쳤다.

* 기사 출처: Atuna, 2023년 1월 19일자

Atlantic Skipjack & Yellowfin Catches Falling

TOTAL: Catching Of Tuna In AO In M/T Full Year

| | OCEAN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Diff. % |
|-------------|-------|---------|---------|---------|---------|---------|---------|---------|---------|
| Skipjack | ATE | 221,076 | 237,395 | 241,957 | 283,169 | 258,526 | 222,231 | 196,987 | -11% |
| | ATW | 21,066 | 22,367 | 24,045 | 23,273 | 20,121 | 18,859 | 19,951 | 6% |
| Yellowfin | ATE | 102,473 | 114,124 | 98,841 | 102,632 | 108,093 | 124,675 | 83,820 | -33% |
| | ATW | 28,226 | 37,262 | 38,678 | 33,898 | 28,922 | 32,017 | 26,783 | -16% |
| Bigeye | A+M | 80,000 | 79,897 | 78,665 | 73,077 | 75,563 | 59,033 | 45,959 | -22% |
| Albacore | ATN | 25,635 | 30,400 | 28,475 | 29,733 | 34,787 | 31,408 | 31,374 | 0% |
| | ATS | 15,201 | 14,383 | 13,825 | 17,098 | 15,614 | 18,171 | 25,006 | 38% |
| Bluefin | MED | 3,800 | 4,396 | 3,176 | 2,863 | 2,762 | 2,675 | 2,901 | 8% |
| | ATE | 4,841 | 5,968 | 7,216 | 8,157 | 9,093 | 10,874 | 10,346 | -5% |
| | ATW | 1,842 | 1,901 | 1,850 | 2,027 | 2,306 | 2,269 | 2,303 | 1% |
| | MED | 11,372 | 13,206 | 16,450 | 19,624 | 22,041 | 24,164 | 24,729 | 2% |
| Grand Total | | 515,532 | 561,299 | 553,177 | 595,552 | 577,828 | 546,375 | 470,159 | -14% |

Powered by Atuna Analyst

Source: ICCAT



“민간 로비, 지속가능성 저해하지 않아”

참치 업계 영향력 낮아...오히려 참여 증가가 도움 될수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회의에서 참치 기업 및 업계의 참여를 분석한 한 최신 연구는, 이들의 참여 및 국가 대표단의 로비가 참치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1월 One Earth 저널에 ‘국제 참치 어업 협상의 업계 참여 증가’라는 논문이 게재되었다. 연구진은 WCPFC 연례회의 동안 어업계 대표 및 정부 정책 입안자들의 상호작용을 탐구했다. 연구진은 또한 위원회 참석 기록과 참석자 인터뷰 분석을 통해 어업 회사의 참여가 시간에 걸쳐 어떻게 변화했는지 연구했다.

최근 프랑스 NGO BLOOM은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에 대한 참치 업계의 개입을 비판한 보고서에서, EU 당국이 스페인, 프랑스 선단과 결탁해 인도양 참치 자원을 착취한다고 주장했다. EU 선망업계 측은 이러한 주장이 RFMO 의사결정 과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인터뷰 대상자 15인 중 대다수는 WCPFC의 주요 갈등이 군소도서개발도상국(SIDS)과 비(非)도서국간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단언했다. 인터뷰 대상자 중 47%는 WCPFC에서 대기업들의 영향력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규모 원양어업 국가 간의 갈등으로 인해 결국 ‘국가 단위 관계’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지리적 구성 및 수역 내 참치 자원의 집중도로 인해, 태평양 도서국은 협상에서 대단히 우세한 위치를 점하며, 이로 인해 참치 업계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연구는 지적했다.

PNA는 강력한 지역 연합으로, 해외 어업회사는 협정

을 통해 PNA 정부에 일일 선박 입어료를 지불해야 한다. 해당 연구는 이러한 협정이 “힘의 불균형이 저소득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했을 때에도, 다자간 지역 협력이 자원 소유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연구에 따르면, 일부 참치 기업은 한때 PNA의 스쿨조업 선망어업 MSC 인증에 반대했으나, 나중에는 원래 PNA 국가들이 주창했던 강력한 참치 관리 조치에 더 많은 지지를 보냈다. 연구에서 분석한 기업의 절반 이상이 현재 PNA MSC 인증 및 이들 국가의 관리조치를 기반으로 자체 MSC 인증을 보유 중이다.

연구는 WCPFC에 대한 업계 참여 증가는 도서국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및 지속가능 어업 노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나타나며, 이는 해당 부문의 영향력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어업 관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정책 입안자에 대한 업계 압력은 자국 수준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특정 기업의 초국가적 영향은 정부 조작부패보다 경제 및 지속가능성 이익이 교차하는 방향으로 더 잘 나타난다.

해당 연구는 민간 부문이 WCPO에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이들의 협상 참여가 SIDS의 자주권 및 해당 지역 참치 자원의 장기적 생존성을 보장하려는 이들의 열망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 기사 출처: Atuna, 2023년 2월 2일자



그린피스, 미국 소매업체 평가...대부분 낙제점

지속가능성, 인권 관련 평가

그린피스 US는 미국 주요 슈퍼마켓의 지속가능성 관행과 참치 공급망 인권에 대한 두 번째 보고서 '저렴한 참치의 높은 비용'을 발표했다. 약간의 개선이 있었지만 독일 기반 할인마트 체인 Aldi USA만 D등급으로 간신히 통과했고 Whole Foods를 포함한 나머지 16개 주요 미국 소매업체는 F등급을 받았다.

이 보고서는 점수 개선을 보인 소수의 소매업체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움직임의 일부 초기 조짐을 볼 수 있지만 통과 등급을 달성하기에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시작된다. 그린피스는 더 많은 소매업체가 지속가능성과 인권에 대한 책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질문에 응답하고 자세한 답변을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설문조사에는 가중치가 다른 6개 범주의 39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참치 조달정책(20%), △추적성(20%), △지지 및 이니셔티브(10%), △인권 및 노동 보호(25%),

△현재 조달(20%), △소비자 교육 및 라벨링(5%).

그린피스는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채낀기 어업을 '보다 지속가능한 어업 관행'으로 간주한다. 선망선 스쿨조업도 유사하게 간주한다. Albertson's, Kroger, Sprouts, Whole Foods는 채낀기 참치 구매를 확대했다.

어선원 안전과 복지에 관련된 질문에는 선박이 국제 안전 기준을 준수했는지, 선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영양·식수를 무료로 제공했는지, 연속 3개월 승선을 최대치로 하고 있는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린피스는 Albertson's, Hy-Vee, Whole Foods, Aldi 외에 해당 항목에 대해 점수를 받은 소매업체가 없다고 말했다.

그린피스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이행지침(UNGP)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Aldi의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강제 노동 정책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3년 2월 14일자

日, 원양 참치어업 정보서비스 운용 추진

수온, 조업 상황 등 실시간 정보 제공

일본 어업정보서비스센터(JAFIC)는 지난 19일, '에비스군 세계판(エビスくん世界版)' 서비스의 운용 개시를 2023년 초로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대상이 되는 인도양, 북대서양, 남대서양, 북동태평양, 북서대서양, 남동태평양, 남서태평양 7개 수역 중에서 수역 번호를 선택하면 조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는 해황 정보는 ▽위성을 이용한 정밀 표면수온 ▽50~400m의 단계적 중층 수온 ▽참치 먹이가 되는 소형어가 잘 모이는 장소를 표시한 분포도 ▽해면고도분포도 ▽표층 흐름 ▽EEZ 라인 ▽고해상도해양예보모델(HYCOM)에 따른 각종 정보 제공 등이 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1월 25일자



프랑스 기업, 선망선 보존 시스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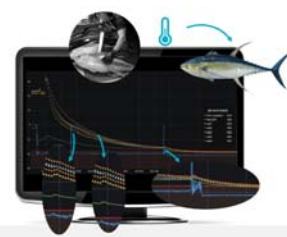
탱크 염분 조절 및 실시간 데이터 전송 가능

프랑스 수산기업 Olen사(社)가 혁신적 참치 선망선 냉동 시스템인 Smart Brine Viewer(이하 SBV)를 선보였다.

참치 선박에서의 냉동 보관은 염도, 염분 흡수 등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EU는 참치 원어와 로인이 최소 영하 18°에서 냉동 보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Olen사의 공동 설립자이자 오너인 Gildas Bodilis 회장에 따르면 SBV 시스템은 어획물이 흡수하는 탱크의 염분량을 기록해 염분 강도 및 사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해당 시스템은 또한 정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염분 흡수 및 염수 접촉 시간 사이의 균형을 맞춘다. 염수 탱크에 장착된 센서는 선원 및 선사에게 상세한 실시간 데이터와 상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어획물의 질을 보존하기 위해 갑판에 별개의 저장고를 설치해 유연성을 증대시켰다.

해당 기술은 모든 참치 어선에 적용 가능하며, 프랑스 참치 어업회사인 CFTO사의 인도양, 대서양 선망선에 설치되어 있다.



SBV는 모든 데이터를 소프트웨어로 육상의 선단 관리자에게 전송한다. 판매 부서는 이를 통해 로인과 캔에 사용될 참치의 품질 및 수량을 결정할 수 있다.

해당 기술에는 여러 이점이 있다. 우선 염수의 염분 농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금을 절약할 수 있다. 작년 선망선 사업자들은 산업용 소금 가격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SBV 시스템은 또한 냉동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을 감소시켜 참치의 품질 향상에도 기여한다.

* 기사 출처: Atuna, 2023년 1월 18일자

일본참치그룹, 모리타니와 어업권 협정 체결

연승선 25척, 5년간 모리나티에서 어업 가능

모리타니 수산청이 일본참치그룹과 어업권 협정을 체결했다. 해당 협정에 따르면 총 25척의 연승선이 모리타니 수역에서 참치를 어획할 수 있으며, 기간은 5년이다.

모리타니와 일본참치그룹 측은 협정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은 ICCAT으로부터 동부대

서양 참다랑어 어획 쿼터로 전년 대비 증가한 3,114 톤을 배정받았다.

ICCAT의 16년차 회원국인 모리타니는 동부대서양 참치 어획 선단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며, 향후 2년 내로 선망선 2척을 배치할 계획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3년 1월 12일자



日 미쓰비시, Princes 통조림 부문 매각 결정

매각 금액 8~10억 파운드 전망

금융서비스 조사 플랫폼 Debtwire에 따르면, 일본 재벌 미쓰비시가 자회사인 영국 Princes 그룹의 수산물 통조림 부문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Debtwire에 따르면 투자은행 Houlihan Lokey의 감독 하에 경매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잠재적 입찰자에게 매각 관련 정보가 전달되었다.

Houlihan Lokey가 전달한 정보에 따르면 Princes의 EBITDA(감가상각 전 영업이익)은 8,000만 파운드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쓰비시 측은 EBITDA의 약 10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약 8억 파운드에서 10억 파운드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Young's Seafood, Greenland Seafood Europe 등의 기업을 매각한 전력이 있는 글로벌 사모

펀드인 CapVest Partners가 Princes 인수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UndercurrentNews에 따르면 수산물 부문에서는 Bolton 그룹과 동원산업 등이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온 보관 수산물 부문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구축한 Princes 그룹은 참치, 연어 및 기타 수산물 통조림 기업인 Princes 브랜드 외에도 오스트리아 주요 통조림 브랜드인 Vier Diamanten를 소유 중이며, 또한 모리셔스에 대규모 참치 가공공장을 보유 중이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3년 1월 11일자,
UndercurrentNews, 1월 12일자

Europêche-Innomar 스마트 부이 관련 MOU 체결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어업 위해

유럽어업인연합(Europêche)은 지속가능한 어업을 제고하는 혁신적인 방안과 스마트 부이로 참치 등 수산물을 어획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르웨이 회사인 Innomar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두 조직은 이러한 협력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어업인들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어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스마트 부이 개발 및 활용의 활성화는 참치 선망선에 유용할 수 있다.

Innomar가 주안점을 두는 사항은 해양에 배치된 장비 및 장비와 관련된 정보를 추적·모니터링·수집하는 추적가능한 스마트 부이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Innomar의 주력 제품은 4G와 위성망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첨단 사물인터넷(IoT) 기기인 'Sunfish Smart Buoy'와 디지털 센서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3년 1월 17일자



아르헨티나 일렉스오징어 어획 부진

中 일렉스오징어 가격 상승 추세

아르헨티나의 일렉스오징어 어획 부진과 함께 세계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서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중국 오징어 가공업체 Yantai Five Star Food의 소식통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일렉스오징어 어업이 그다지 좋지 못해 이미 상승 중인 중국의 일렉스오징어 가격에 더욱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 오징어산업협회 CAPA의 Juan Redini 회장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오징어채낚기 선단(총 72척)의 대부분은 현재 해안에서 약 100해리 떨어진 남위 47도 부근(47 degrees south)에서 조업 중이다. Redini 회장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어업 시즌 초기가 가장 어획량이 많은 시점으로, 1척당 일일 60톤 수준을 기록한다. 그러나 올해 척당 어획량은 일일 20~30톤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심지어 15~20톤을 기록하는 어선도 있다.

대규모 해외 선단(주로 중국 원양선단)은 남위 45도 부근(45 degrees south) 공해에서 조업 중이다. Marine Traffic의 위성 데이터에 따르면, 해외 선단 척수는 약 200척으로 추정된다. Redini 회장에 따르면 공해 선단(주로 아르헨티나 EEZ 밖에서만 조업)의 일일 어획량은 척당 3~5톤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Redini 회장은 수온 등의 조건이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정확한 어획 부진 원인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Yantai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항구의 300~400g 냉동 일렉스오징어 몸통(tube) 가격은 12월 마지막 주 톤당 2만 7,000 위안(약 4,015 달러)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같은 주 가격에 비해 톤당 4,500 위안, 2020년 같은 주 가격에 비해 톤당 1,000 위안 상승한 수치이다.

Redini 회장은 가격에 대한 언급을 피했으나, 구매자

들이 조업 시작 후 가격 하락을 예상하기 때문에 현재 거래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Redini 회장에 따르면 원래 아르헨티나의 일렉스오징어 수출량 중 70%가 중국행이었으나,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여러 수출업자들이 타 시장으로 선회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오징어 재고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르헨티나 정부 통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일렉스오징어 어획량은 어업 시즌 초반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한다. 아르헨티나의 오징어 어 양륙은 일반적으로 1월에 시작되어 2월에 고점을 기록하고, 5월~7월 사이에 대부분 조업이 마무리된다.

2022년 아르헨티나 선단은 2월에 4만 2,000톤을 어획했으나, 3월에는 3만 3,000톤을 어획하는 데 그쳤다. 통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2022년 일렉스오징어 어획량은 최근 9년 중 세 번째로 많은 16만 7,000톤을 기록했다.

Redini 회장에 따르면 남획이 오징어 어획량 감소의 원인 중 하나일 수도 있다. 산란을 위해 자원의 20%를 보존하라는 아르헨티나 정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징어 어업은 관리되지 않는 상황이다.

중국 항구의 12월 마지막 주 살오징어 가격은 톤당 2만 6,750 위안으로, 2021년 같은 주 대비 4,500 위안 상승했다. 대왕오징어의 12월 마지막 주 중국 항구 가격은 톤당 1만 50 위안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의 살오징어와 대왕오징어 재고 또한 많지 않고, 달러 환율 문제로 인해 중국 가공 비용도 높아졌으며,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철회로 인해 내수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 기사 출처: Atuna, 2023년 2월 1일자



러시아 오호츠크해 2월 초 명태 어획량 3% 증가 약 23만톤

일본 홋카이도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러시아 오호츠크해의 포란 명태어업 어획량은 2월 5일 기준 23만 1,1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다. 다만 1월 하순 어획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증가폭이 다소 줄어든 셈이다. TAC 소화율은 23%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p 상승했다.

해당 어업의 조업 척수는 대형 트롤선 최대 47척, 중형 트롤선 26척으로 총 73척이다. 주 어장인 서캄차카 수

역의 어획량 누계는 10만 1,200톤이다. 캄차카쿠릴 수역의 어획량은 6만 4,800톤, 북부 오호츠크 수역은 5만 3,300톤을 기록했다.

서캄차카 내의 남부에서 어획된 명태의 어체 몸길이는 38~43cm가 주를 이루며, 평균 체중은 458g이다. 암컷의 비율은 48~53%, 포란율은 2.7~3.2%이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2월 10일자

러시아 2022년 어획량 3% 감소 명태, 청어 어획량 증가

러시아의 2022년 어로 어업 총 생산량은 488만톤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했다.

러시아 수산청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어획량은 극동, 북부, 볼가-카스피, 아조프-흑해, 공해 등에서 전년 대비 감소했다. 그러나 명태와 청어 어획량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볼가-카스피 수역 어획량은 9만 6,200톤으로 4.2% 감소했다. 동쪽은 러시아와, 북서쪽과 남서쪽은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아조프-흑해 수역 어획량은 4만 4,700톤으로 30.1% 감소했다.

해외 수역, 협약 수역(convention area), 공해 어획량은 총 57만 7,000톤으로, 전년 대비 12.2% 감소

했다.

러시아 극동 수역 어획량은 349만톤으로 1.6% 감소했다.

명태 어획량은 190만톤으로 전년 대비 7,200톤 증가했다. 태평양청어 어획량은 47만 1,000톤으로, 5만 6,500톤 증가했다. 북부 수역 어획량은 52만 7,600톤이다.

서부 수역 총 어획량은 8만 1,600톤으로, 전년 대비 3.6%(2,800톤) 증가했다. 이 중 발트해 청어 어획량은 2만 6,100톤으로 3,300톤 증가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1월 12일자



러시아, 일본과의 연례 어업 회담 거부 통보

명태 어업 등 영향 우려

러시아가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쿠릴 열도 4개 섬 인근에서 명태 어업 등의 조건을 정하는 연례 회담의 취소를 통보했다.

노무라 테츠로(野村哲郎) 일본 농림수산업장관은 지난 19일 러시아 외무성으로부터 이와 같은 통보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명태 어업은 일반적으로 1월 초부터 3월 중반까지이다. 러시아가 이대로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명태 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

해당 연례 회담은 1998년 발효된 양국의 합의에 근거했다. 1998년 합의는 쿠릴 열도 4개 섬 근처 수역에서

조업하는 일본 선원이 러시아 당국에 구금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연례 회담은 명태, 임연수어, 문어가 주 대상이다. 회담에서는 연말까지 합의의 효력을 확인하고 다음 해 일본 어선의 어획량 및 어기, 러시아에 지불하는 협력금 등이 논의된다.

일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 제재 대열에 합류한 후, 러시아는 작년 6월 해당 합의의 이행 정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1월 24일자

EU, 러시아 신조선·개조선 대상 수입 승인 거부

최소 3개 이상의 러시아 수산 대기업 타격

EU 집행위원회(EC)가 러시아 신조선 및 개조선에 대한 EU 수입번호 발급을 중단해 최소 3개 이상의 러시아 수산 대기업이 타격을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Okeanrybflot사(社)와 RFC사의 신조선 및 노레보(Norebo)의 개조선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RFC 어선의 경우 필렛과 연육(surimi)을 유럽에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또한 RFC와 Okeanrybflot사의 명태 더블프로즌(double-frozen, 냉동 상태에서 해동되어 가공된 후 2차 냉동된 제품) 가공품 또한 유럽으로 수출될 수 없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Okeanrybflot사의 Dmitry Gusev 영업이사는 이번 조치로 인해 RFC와 같이 선상 가공능력이 있는 기업

은 필렛 대신 연육 생산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Okeanrybflot사 등은 러시아 자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필렛 생산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Gusev 이사는 또한 이번 조치로 인해 EU 공급이 감소해 미국산과 중국산 의존도가 올라가고 미국산 필렛에 높은 가격을 지불해 유럽의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Gusev 이사는 EU의 경기 침체와 같은 객관적 이유 및 러시아산 필렛에 대한 EU의 규제로 인해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필렛 가격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1월 16일자



러시아 필렛 생산량, 최초로 미국 추월

2022년 13만 9,000톤 생산

고차가공화 전략을 취하고 있는 러시아 수산업계의 2022년 명태 냉동 필렛 생산량이 2021년 대비 16.8% 증가한 13만 9,000톤을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미국 생산량을 넘어섰다.

미국의 2022년 명태 냉동 필렛 생산량은 2021년 대비 1.5% 감소한 13만 8,000톤을 기록했다.

러시아의 2022년 명태 냉동 필렛 생산량은 2015년 4만톤 대비 3.5배 증가했다. 반면, 미국의 2022년 생산량은 2015년 17만 6,000톤 대비 21.6% 감소했다.

근래 들어 전세계 명태 생산량은 약 350만톤으로 이 중 러시아가 약 180만톤, 미국이 약 150만톤 정도를 생산하는 추세였으나, 2022년에는 미국의 명태 TAC가 감소하면서 냉동 필렛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는 명태 어업의 고차가공화 전략을 통해 선단 현대화를 추진 중이다. 2020년 선상 필렛 가공이 가능한 선박은 30척이었으나, 2021년에 40% 증가한 42척이 되었고, 연안 육상 가공공장 건설도 추진되어 생산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2022년 미국은 TAC 감축과 더불어 어획물의 소형화로 인해 필렛에 적합하지 않은 개체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의 필렛 생산 증가는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중국 H&G 수출 루트가 막히면서 필렛, 민스, 연육 생산 비중을 늘린 것 또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 기사 출처: 홋카이도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
2023년 1월 28일자

노레보 유럽, 창업자 아들이 경영권 승계

Vitaly Orlov 아들 Nikata로 지배권 명의 변경

러시아 수산 대기업 노레보(Norebo)의 유럽 지부 경영권이 전 오너의 아들에게 승계되었다.

영국 비즈니스 등록 기업 Company House에 따르면 노레보 유럽 지부의 지배권 명의가 노레보 창업자이자 오너인 Vitaly Orlov에서 그의 아

들인 Nikita Vitaljevich Orlov로 변경되었다. Nikita의 국적은 노르웨이로 등재되어 있다.

Vitaly Orlov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바 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1월 25일자



美 명태 등 흰살생선 수요 증가 예상

대구 공급 감소 문제 등 우려

미국 국제수산물시장컨퍼런스(GSMC)에서 패넬로 나선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2023년 미국에서는 명태를 비롯한 흰살생선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대서양대구 공급 감소 문제가 우려된다.

시장정보업체 Urner Barry사(社)의 Lorin Castiglione는 전반적 흰살생선 시장 전망이 긍정적이며, 명태, 해덕대구, 틸라피아, 팡가시우스 등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구 시장은 러시아 제재로 인해 다시 한 번 공급에 제약을 받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astiglione은 다른 종의 가격이 '정상' 범주로 회복되는 동안, 대구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할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말했다.

알래스카명태생산자협회(GAPP)의 Ron Rogness 부사장은 "미국 명태 쿼터가 16% 증가하고 자국 명태 시장이 수출 하락을 감수하며 성장하는 상황에서 2023년은 명태 산업에 중대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명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Rogness 부사장은 미국의 필렛 생산 증가율이 쿼터 증가 이상일 것이며, 더 많은 PBO(가시제거), 딥스킨(껍질·지방층 제거) 필렛 생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서양대구 시장의 중대 이슈는 공급 급감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 부문 패넬에 따르면 2023년 대서양대구의 전세계 어획량 예상치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92만 9,000톤으로, 26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태평양대구 어획량은 평이한 수준인 38만톤으로 예상된다.

패넬이 인용한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산 대서양대구 직수입 금지 및 쿼터 감축으로 인해 필렛 가격은 높은 편이다. Urner Barry의 데이터에서도 대구 필렛 및 로인 가격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덕대구의 2023년 예상 어획량은 30만 8,000톤으로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1월 27일자

美 알래스카 명태, 대구 어업 10만톤 이상 어획

2월 말까지 20만톤 이상 어획 예상

미국 냉동 수산물 공급업체 Tradex에 따르면, 미국 알래스카 태평양대구, 명태 어업에서 10만톤 이상이 어획되었으며, 2월 말까지 20만톤 이

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2월 13일자

| | 2023년 누계 | 2023년 TAC | 2022년 어획량 | 2022년 TAC |
|-------|----------|-----------|-----------|-----------|
| 태평양대구 | 23,583 | 168,351 | 157,611 | 174,373 |
| 명태 | 128,534 | 1,448,227 | 1,238,625 | 1,271,367 |



알래스카 명태, 경기 침체 동안 가격 강세 예측

A시즌 1월 20일 시작...어업 여건 좋을 것으로 예상

일부 업계 전문가는 알래스카 명태 부문이 다가오는 명태 A시즌에 잘 대비했고, 쿼터 증가와 함께 경기 침체 기간에 가치 있는 어종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적 역풍으로 소비자들이 코로나19 이후의 높아진 가격에 구매를 꺼리고 있다. 미국 명태 가격이 2023년까지 톤당 5,000 달러의 고가에 계속 머무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미국 명태 대기업 American Seafoods의 Rasmus Sorensen 국제영업부문 부사장은 “미국 시장의 명태 블록 계약을 몇 건 체결했으며, 수요로 인해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Sorensen 부사장은 “하반기에 어떨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Sorensen 부사장은 자연산 알래스카 명태가 주요 시장의 소비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크게 선호되는 경향이 있고, 다른 흰살생선과 비교해서 돈을 절약하길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명태 A시즌은 1월 20일에 공식적으로 시작되며, 시애틀의 선단은 이미 출항했거나 알래스카 더치하버(Dutch Harbor)에서 출항 준비를 하고 있다.

한 알래스카 명태 주요 가공업체 임원은 어업 여건이 좋을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임원은 포란 기간 동안의 집계량이 좋았고 지난 2~3년간의 A시즌보다도 더 큰 산출량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Sorensen 부사장은 딥스킨 가격이 2022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나, PBO(가시제거) 필렛의 경우, 돈을 절약하길 원하는 유럽 구매자들이 가격 때문에 구매를 망설일 수 있고, 이로 인해 PBO 가격은 하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3년 1월 16일자

일본수산, ‘속근단백’ 바(bar) 형태 신제품 출시

콩·툇, 우영·연근 함유

일본 수산 대기업 (주)일본수산(이하 닛스이)은 1월 24일, 봄·여름 신제품을 발표했다. 이 중 가정용 연육(すり身) 제품군인 ‘속근단백(速筋タンパク)’ 시리즈에는 바(bar) 타입의 신제품 ‘콩과 툇’과 ‘우영과 연근’ 제품이 출시된다. 간편하게 단백질 섭취가 가능한 바 형태의 상품 시장이 확대

되고 있어, 미용이나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층을 노린 제품이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1월 26일자





日 2022년 공치 어획량 1만 7,910톤

4년 연속 역대 최저치 경신

일본 전국공치붕수망어업협동조합에 따르면 2022년 일본의 공치 어획량은 전년 대비 2% 감소한 1만 7,910톤으로, 4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홋카이도에 양륙된 양은 전년 대비 9% 감소한 1만 818톤, 혼슈(일본 열도를 구성하는 가장 큰 섬)에 양륙된 양은 12% 증가한 7,092톤이다.

전체 어획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9% 감소한 103억 1,180만 엔이다. 전국 평균 단가는 7% 하락한 10kg당 5,758 엔이다.

2022년 일본의 공치 조업은 7월 초순 유망으로

시작되었으나 극소량이었다. 8월 하순 이후 붕수망 선단이 출어한 이후에도 북태평양 공해의 먼 어장에서 조업이 진행되어 어획은 침체되었다. 감독선의 용선료 부담으로 인해 러시아 수역 조업을 보류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10월 말까지의 어획량은 1만 1,018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으나 11월 6,851톤(전년 동월 대비 19% 감소), 12월 41톤(90% 감소)로 갈수록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심각한 부진을 겪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1월 12일자

日 11월 냉동 공치 재고 6,647톤

10월 대비 약 30% 증가

일본 전국 주요 냉동저장고의 2022년 11월 시점 공치 재고는 6,647톤으로, 2021년 동월 대비 23% 감소했다. 2022년 10월과 비교하면 약 30% 증가했다. 월간 입고량은 3,380톤으로 7% 감소했다.

12월 일본의 자국 어획량은 거의 없었으나, 무

역 통계에 따르면 수입량이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적게나마 전년 대비 연말 재고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2월 13일자

| 연도 | 월말 재고량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2022 | 7,003 | 6,552 | 5,730 | 5,668 | 5,296 | 5,006 |
| 2021 | 8,749 | 11,398 | 11,028 | 10,236 | 9,559 | 7,804 |
| 2020 | 14,228 | 12,950 | 11,891 | 10,601 | 9,902 | 7,893 |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2022 | 5,388 | 3,866 | 4,182 | 4,947 | 6,647 | |
| 2021 | 6,977 | 9,193 | 5,759 | 5,577 | 7,302 | 6,986 |
| 2020 | 7,270 | 6,900 | 6,089 | 6,994 | 8,987 | 9,248 |



새 FDA 규정, 美 수산물 공급 이력추적 요건 강화 추적가능성 기록 보존 요건 강화·FDA 권한 강화 등

EU 위원회가 인권·노동권 침해 생산물(수산물 포함)의 EU 시장 반입 금지 안전을 제안했고, EU의 해양수산부문 사회적 파트너인 유럽운수노동자연맹(ETF)과 유럽어업인연합(Europêche)이 이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ETF와 Europêche는 1월 30일 회의에서 수산 부문과 관련된 특정 측면을 다루는 공동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들은 입법 과정을 면밀히 따를 계획이며, 강제노동 연루 수산물을 배제하는 데 있어 명확하고 목적에 적합하며 효과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피드백과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적 파트너들의 대표 중 1인은 “EU 국가관할

당국이 조사 및 금지 조치 시행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파트너들은 당국에 입증된 강제노동 상황 사례를 보고할 수 있어야 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TF와 Europêche는 또한 자신들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검사관” 네트워크를 통해 당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TF와 Europêche는 EU 내에서 생산되고 EU 외부에서 거래되는 수산물 또한 규제의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사 출처: FiskerForum, 2023년 2월 6일자

Europêche, BBNJ 협정서 어업 제외 촉구 RFMO 등 법적 기구, 기관 등 권한 논쟁

UN이 공해조약(High Seas Treaty) 체결을 위해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UN 공해 해양생물다양성보전(BBNJ) 5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약의 목표는 해양보호구역(MPA)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 도구를 구현하고, 공해에서의 인간 활동(human activity)을 규제하는 것이다.

유럽어업인연합(Europêche)은 BBNJ는 기존의 관련 법적 기구, 프레임워크 및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의 범위, 의무, 권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공해상에서의 어업 활동은 참여자

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 기구 단위로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BBNJ 협정에서 수산업의 제외를 요구하고 있다.

BBNJ 협정의 주요 논쟁 중 하나는 해석 차이 문제이다. ‘침해하지 않는 것(not undermine)’을 ‘역량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측이 있는 반면, BBNJ 당사자 및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RFMO 등의 법적 기구, 프레임워크, 관련 기관 등이 채택한 결정을 넘어 행동을 취하고 자원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측도 있기 때문이다.

* 기사 출처: FiskerForum, 2023년 2월 10일자



美 연구, 임산부 주 1~3회 어류 섭취 권장

정기적 어류 섭취 시 자녀 대사건강 지표 우수

미국 주간지 US News & World Report는 건강 연구 기사를 통해 임산부가 오메가-3 지방산 등의 이점을 얻기 위해 주 1~3회 어류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인용된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 Keck 의과대학의 Vaia Lida Chatzi 예방의학부교수가 JAMA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임신 중 매주 1~3회 어류를 섭취한 산모의 자녀는 6~12세에 허리 둘레,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등 대사건강 지표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어류에서 발견되는 영양소 중 하나인 콜린(choline)은 태아의 척수

발달 및 인지 발달을 지원한다.

반면, EBioMedicine 저널에 게재된 임산부의 혈액에서 EPA와 DHA를 측정한 연구에서는 임신 1분기(초기)와 2분기(중기)에 수치가 가장 낮은 산모가 가장 수치가 높은 산모에 비해 조산할 가능성이 10배 더 높다고 결론지었다.

FDA가 선정한 임신 중 '최상의 선택'인 어류 식품 목록에는 가다랑어 함유 혼합 참치캔, 오징어, 명태, 대구 등이 포함되었다. '좋은 선택' 목록에는 날개다랑어(캔, 신선, 냉동), 황다랑어 등이 포함되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1월 27일자

수산물 기반 오메가3, 만성 신장질환 위험 감소

만성 신장질환 발병률 저하 및 신장기능 감퇴 둔화

홍콩대학교 Kwok Leung Ong 박사와 동료 연구진이 British Medical 저널에 발표한 동물 대상 연구에 따르면 주로 수산물에서 발견되는 오메가-3 다불포화 지방산(PUFA)은 세포 기능에 중요하고 신장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

해당 연구에서 2만 5,000명 이상의 환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높은 수준의 수산물 오메가-3 PUFA가 낮은 만성 신장질환(CKD) 발병률 및 신장기능 감퇴의 둔화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반면 식물 유래 오메가-3 PUFA는 CKD와 큰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논문에 따르면 기존 연구에서는 신장질환

을 통해 만성 신부전을 유발시킨 실험용 쥐에서 12주간 EPA와 DHA를 보충한 결과, 섬유증·염증·산화 스트레스 감소 등이 확인되었다.

연구진은 연구 결과가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수산물 및 지방이 많은 어류 섭취를 권장하는 식이 지침과 일치하며, CKD 예방 및 관리에서 수산물 유래 오메가-3 PUFA의 잠재적인 유익함을 평가하기 위한 추가 무작위 통제 시험에 대한 근거를 보충한다고 결론지었다.

* 기사 출처: Atuna, 2023년 2월 1일자, British Medical Journal 논문



美 수산물 소매 매출, 올해 하반기 긍정적 전망

2023년 상반기 부진, 하반기 개선 예상

2022년은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로 인해 수산물 소매 판매에 있어 어려운 한 해였으나, 소매업자들과 분석가들은 2023년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리서치 업체 IRI와 210 Analytics에 따르면, 2022년 신선 수산물 소매 매출은 65억 달러(전년 대비 약 8.2% 감소)였다. 냉동 수산물 소매 매출은 71억 달러(2.9% 감소)로 훨씬 적은 감소폭을 기록했다.

상온 보관 수산물 소매 매출은 26억 7,000만 달러(5.6% 증가)로, 올해 가장 눈에 띄는 실적을 기록했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최신 소비자물가지수(CPI)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미국의 식료품점 물가는 2021년 12월 대비 11.8% 상승했으나, 2022년 11월과 비교하면 0.2% 상승에 그쳤다.

2022년 12월 수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5% 상승했고, 2022년 11월과 비교하면 0.8% 상승에 그쳤다.

IRI의 Chris DuBois 부사장은 2023년 총 식품 인플레이션이 2022년에 비해 낮을 것이며, 수산물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로 더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IRI는 전체 식음료 물가가 7~9% 상승하고, 매출은 5~7%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식당·식료품 종합 체인 Santa Monica Seafood의 Roger O' Brien 회장 겸 CEO는 전체 식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대부분의 주요 소매업자가 타격을 받았으며, 수산물도 이러한 가격 상승 품목 중 하나라고 말했다.

O' Brien 회장은 경기 침체가 공식화되고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으면 2023년 상반기 동안 소매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나, 2023년 3, 4분기에 소비자 수, 매출, 이익 등에서 개선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3년 1월 19일자

냉동컨테이너 운임, 팬데믹 이전 수준 회귀

동-서 운임 하락했으나 남-북 운임 여전히 높아

냉동 운송 컨설팅 기업 Eskesen Advisory의 북미 자문위원 William Duggan에 따르면, 냉동컨테이너 운임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으나 편차가 존재한다.

Duggan은 냉동 운임의 팬데믹 이전 수준 회귀가 동-서간 운임에 대한 조정에 가까우며, 남-북간 운임은 오히려 2022년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Duggan은 남-북간 운임에 대해 여전히 수요가

높고 공급-수요 비율이 가격 수준을 유지하기 좋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재가공을 위해 아시아 등에 수산물을 운송하는 동-서간 냉동 컨테이너 시장은 남-북간 항로와 완전히 다르다. 예를 들어 미국은 대부분의 냉동 수입품을 남-북 항로로 반입한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3년 2월 3일자



파도

유 승 우

사는 길이 높고 가파르거든
 바닷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보아라
 아래로 아래로 흐르는 물이 하나 되어
 가득히 차오르는 수평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가 얻는 평안이 거기 있다
 사는 길이 어둡고 막막하거든
 바닷가 아득히 지는 일몰을 보아라
 어둠 속에서 어둠 속으로 고이는 빛이
 마침내 밝히는 여명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는 자가 얻는 충족이 거기 있다
 사는 길이 슬프고 외롭거든
 바닷가 가물가물 멀리 떠 있는 섬을 보아라
 홀로 견디는 것은 순결한 것
 멀리 있는 것은 아름다운 것
 스스로 자신을 감내하는 자의 의지가 거기 있다.





1월 오징어 국내 동향

연근해 생산 부진, 소비자가격 보합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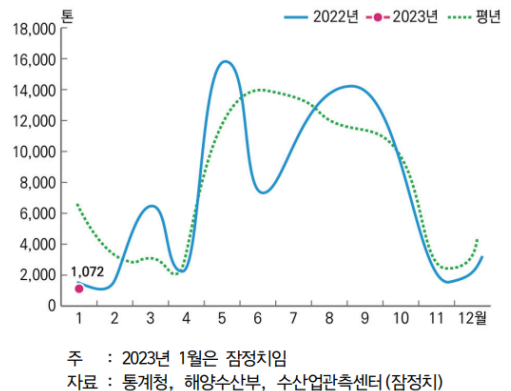
□ 생산동향(1월 오징어 생산량, 연근해 생산 줄고 원양산 반입 없어)

1월 오징어 생산량은 1,072톤으로 전월 대비 65.0% 감소했다. 이는 작년 및 평년 동월에 비해서도 각각 29.0%, 83.5% 적은 양이다. 1월 생산량은 모두 연근해산이었으며, 전년 1월 연근해산 생산량 대비 43.8% 적었다.

연근해 오징어 어장은 강원 및 경북 근해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나 평년 대비 자원밀도가 낮았다.

지역별 위판량을 살펴보면, 삼척수협(163톤), 죽변수협(135톤), 울산수협(111톤) 등 동해안 지역으로의 위판량이 706톤으로 63.7%, 통영수협(177톤), 부산시수협(80톤) 등 남해안 지역으로의 위판량은 394톤으로 35.6%를 차지하였다.

한편, 원양산은 어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까지의 반입실적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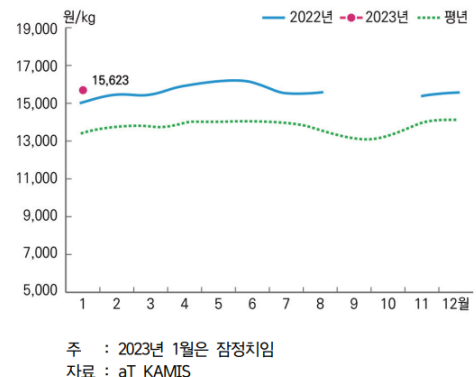


□ 가격동향(1월 냉동오징어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강보합세)

1월 오징어(신선냉장) 산지가격은 kg당 4,999원으로 전월 대비 3.0% 하락했으며 작년 및 평년보다도 낮았다.

이는 생산 부진으로 위판량이 미미하여 가공용 매수세가 거의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징어(신선냉장) 소비자가격은 대형소매점 할인행사 등으로 전월 대비 3.6% 하락한 kg당 23,193원이었다. 오징어(냉동) 도매가격은 전월보다 2.5% 상승한 kg당 10,464원이었으며, 소비자가격은 kg당 15,623원으로 전월 대비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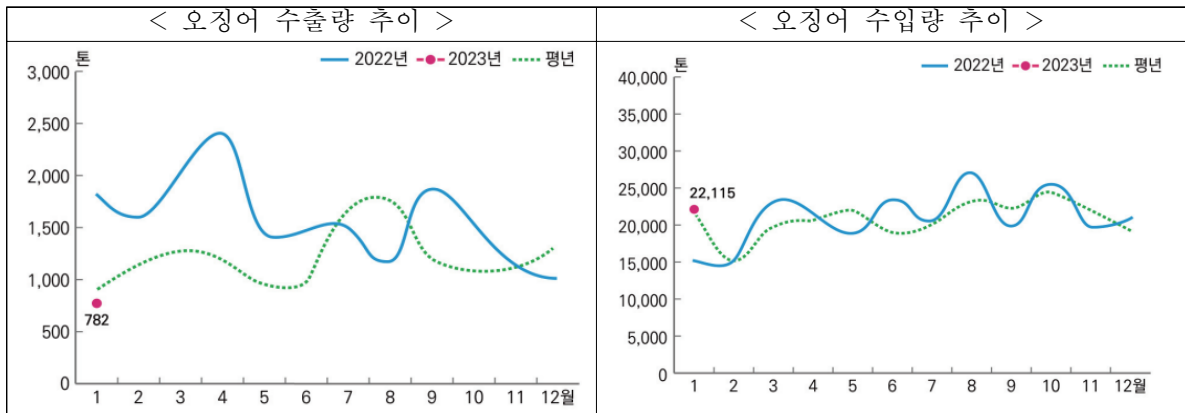


□ 수출입동향(1월 오징어 수입량, 전월 대비 5% 감소한 2만 2,115톤)

1월 오징어 수출량은 782톤으로 전월 대비 23.8% 감소했다. 제품 형태별로는 냉동오징어가 390톤, 기타 제품은 392톤이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으로의 수출물량이 373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국(168톤), 일본(84톤) 등의 순이었다.

1월 오징어 수입량은 전월 대비 5.4% 증가한 2만 2,115톤이었다. 제품 형태별로는 냉동제품 8,226톤, 기타 1만 3,889톤이었다.

국가별로는 페루산이 1만 881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산도 1만 156톤으로 상위 2개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전체의 95.1%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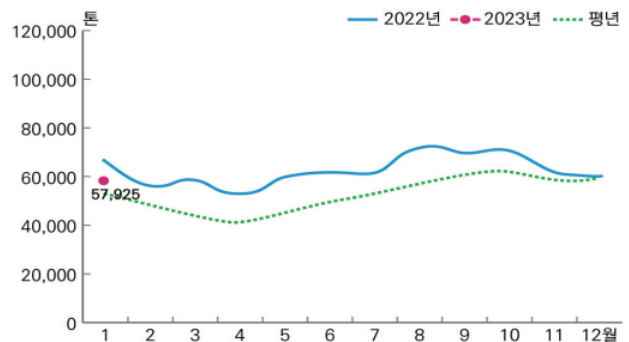


□ 재고동향(1월 말 기준 오징어 재고량 전월 대비 4% 감소)

1월 말 기준 오징어 재고량은 5만 7,925톤으로 전월 대비 3.8% 감소했으며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11.8% 적었다.

이는 수입량이 증가했음에도 연근해 어황부진으로 생산이 적었고 원양산 반입도 없었기 때문이다.

* 자료 출처: KMI 수산물측 2월호





1월 명태 국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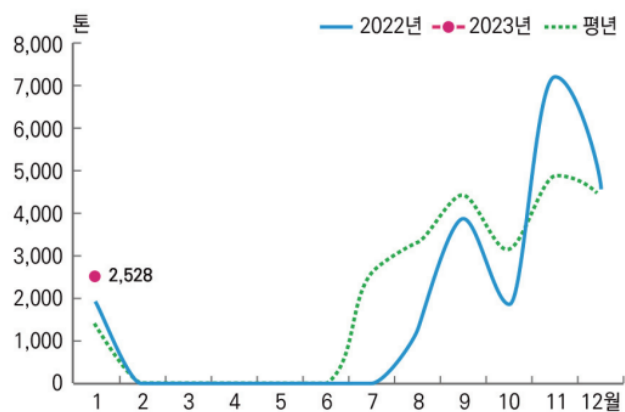
원양명태 반입량 전월 대비 감소, 소비자가격 보합

□ 생산동향(1월 명태 반입량, 전월 대비 45% 감소한 2,528톤)

2022년 원양명태 조업은 쿼터 소진을 위해 12월 말까지 계속되었고, 명태 반입은 2023년 1월까지 이어졌다.

1월 원양명태 반입량은 2,528톤으로 전월보다 45.0% 감소했다. 작년 및 평년 동월에 비해서는 각각 30.8%, 76.6% 많았다.

한편, 1월 말을 마지막으로 2022년 어기 원양명태 반입은 종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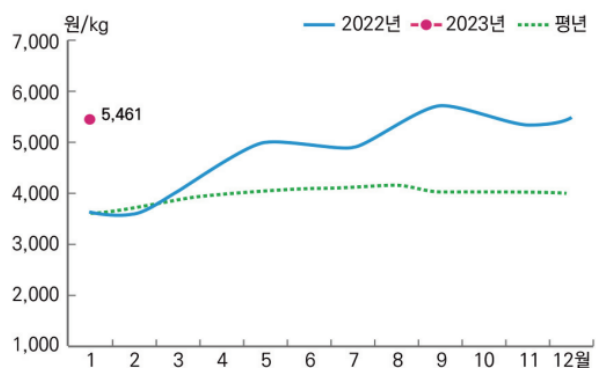


□ 가격동향(1월 명태(냉동) 소비자가격, kg당 5,461원으로 전월 대비 보합세)

1월 명태(냉동) 도매가격은 kg당 2,550원으로 전월에 이어 1.9% 상승했다.

명태(냉동) 소비자가격은 kg당 5,461원으로 설맞이 정부비축물량 방출 할인행사가 진행되어, 물가 안정을 위한 상시방출 할인행사가 있었던 전월과 비슷했다.

그러나 작년 및 평년 동월에 비해서는 각각 49.8%, 52.4% 높았다.



주 : 2023년 1월은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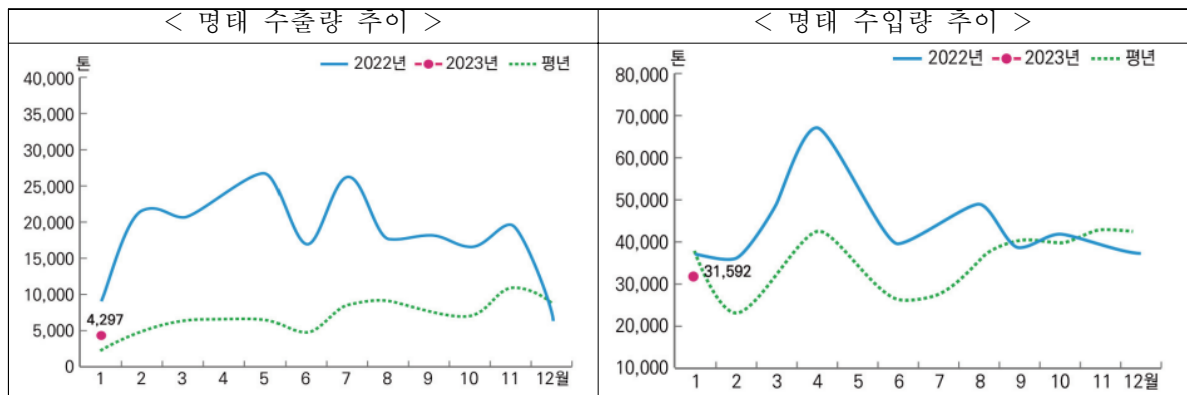
자료 : aT KAMIS



□ 수출입동향(1월 명태 수입량, 전월 대비 15% 감소한 3만 1,592톤)

1월 명태 수출량은 전월(6,329톤) 대비 32.1% 감소한 4,297톤이었다.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52.5% 적었으나, 평년보다는 많았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3,595톤), 베트남(607톤)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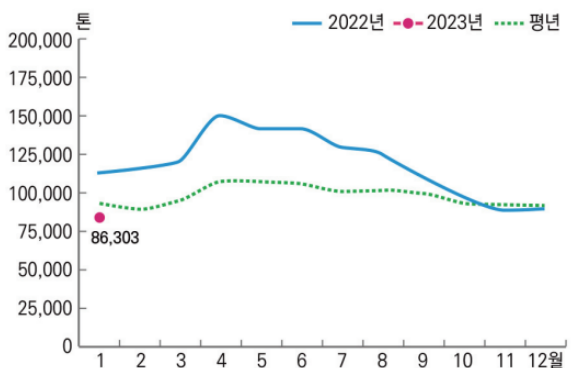
명태 수입량은 3만 1,592톤으로 전월(37,120톤)보다 14.9% 감소했다. 작년 및 평년 동월에 비해서도 각각 14.3%, 13.8% 적었다.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는 러시아산 냉동명태(13,751톤), 러시아산 냉동필렛(10,024톤), 미국산 냉동연육(4,048톤) 등의 순이었다.



□ 재고동향(1월 재고량, 전월 대비 감소)

1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8만 6,303톤으로 반입량과 수입이 줄어 전월(89,401톤) 대비 3.5% 감소했다.

또한 국내 재고로 집계된 對중국 재수출 물량의 영향도 줄어 작년 및 평년 동월에 비해 각각 23.3%, 7.2% 적었다.



* 자료 출처: KMI 수산물측 2월호



2023년 해양수산 ODA, 20여개국에 287억원

ODA와 연계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에 총력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해양 강국의 위상에 맞는 국제사회 기여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을 위해 '23년 해양수산 ODA를 287억원 규모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3년 해양수산 ODA 사업에는 해수온도차 발전, 어촌특화개발 등 신규 사업 14개를 포함하여, 총 30개 사업이 포함된다. 또한 협력 대상 국가는 20여개국으로 아시아(약 53%,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등), 태평양 도서국(약 20%, 피지·사모아·마셜 등), 아프리카(약 13%, 가나·세네갈 등), 중남미(약 8%, 페루) 국가와 협력을 추진한다.

우선, 가뭄, 폭우, 해양 산성화 등 기후변화 위기로 실존적 위협에 직면하고 연안국과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해양조사·관측 및 분석, 재생에너지 개발 등 화석연료 대체를 위한 인프라 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대상국가는 7개 국가이며 약 85억원 규모(7개 사업)이다. 산호초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모아 해양산성화 관측 고도화사업('22~'25, '23년 6억원), 군소도서국 맞춤형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마셜제도 해수온도차 발전사업('23~'26, '23년 8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해기사, 해운·해사 국제규범 전문가 등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 등이 미흡한 태평양 도서국과는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상국은 10개국이고, 41억원 규모(4개 사업)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제해사기구(IMO)와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도서국 여성 해기사 양성 사업('23~'26, '23년 8억원), IMO 협약이행 역량강화사업('23~'27, '23년 8억원) 등을 신규로 추진한다.

어촌마을 자립 능력 강화를 위해 소규모 어항 건설 등 인프라 개선과 양식 기술 이전, 관광 활성화 등을

접목한 어촌 특화개발 사업을 투발루('23~'26, '23년 20억원)에서 처음으로 시작한다. 소규모 어항 건설 및 수산시장 리모델링을 통해 투발루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어업훈련센터 건립을 통해 어업인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 수산양식 성장기반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수온 조절·사료 공급·질병 관리 등을 자동화하기 위한 양식시설 현대화, 친환경 양식 기술 이전, 연구개발·인력 양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대상 국가는 3개국이며, 약 38억원 규모(3개 사업)이다. 인도네시아 고부가가치종인 유류마·나폴레옹 피쉬 양식 생산성 향상 사업('23~'27, 13억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예방·처리 문제가 국제적인 해양오염 현안으로 논의됨에 따라, 올해부터 동아시아해양환경협력기구(PEMSEA)와 협력하여 세계 최대 해양쓰레기 발생 지역인 필리핀, 동티모르 등을 대상으로 해양 플라스틱 생애주기 관리 사업('23~'28, '23년 12억원)을 신규 추진한다. 지역별 상황에 있는 해양 플라스틱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쓰레기 차단시설, 수거 차량, 집하장 등 관련 설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 선도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책무를 수행해야 할 국가 중의 하나”라며, “기후변화 대응, 해양환경 보호,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등 글로벌 현안 문제를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해양수산 ODA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해양수산 ODA를 지속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3년 해양수산 ODA 리스트>

| 사업명 | | | 총 사업비 | '23년 | 사업기간 |
|-----|----------------------------|-------------------------------------|-------|------|---------|
| 1 | 아 시 아 | (인니) 한국 정지궤도위성 활용시스템 구축 | 60 | 15 | '22~'26 |
| 2 | | (인니) 그린스마트 해양수산교육센터 설립(신규) | 75 | 15 | '23~'28 |
| 3 | | (인니) 양식생산성 향상 스마트 기술지원(신규) | 70 | 13 | '23~'27 |
| 4 | | (베트남) 북부지역 수산양식산업 생산성 향상 기술협력 | 30 | 10 | '22~'26 |
| 5 | | (스리랑카)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개발 | 50 | 10 | '20~'25 |
| 6 | | (스리랑카) 콜롬보항·골항 항로표지 개발사업(신규) | 18 | 5 | '23~'24 |
| 7 | | (필리핀) 해상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역량강화(신규) | 40 | 10 | '23~'26 |
| 8 | | (키르기스스탄공화국) 수산양식개발센터 설립 사업 | 50 | 15 | '22~'26 |
| 9 | | (필리핀·베트남) 선박 온실가스 저감 대응체계 구축(신규) | 50 | 10 | '23~'27 |
| 10 | | (동티모르·필리핀) 동아시아 해역 해양플라스틱 저감(신규) | 120 | 12 | '23~'28 |
| 11 | | (미얀마·필리핀 등) 연안도서국 수산 기술 및 정책연수 | - | 2 | '12~계속 |
| 12 | | (베트남 등) 선박 해양폐기물 저감(신규) | 75 | 15 | '23~'27 |
| 13 | | (베트남·필리핀·인니 등) 국제 승선실습 프로그램 | 72 | 15 | '21~'25 |
| 14 | | (베트남·통가 등) 해사 친환경·해양디지털 여성 역량강화(신규) | 40 | 8 | '23~'26 |
| 15 | 태 평 양 도 서 국 | (사모아) 기후변화대응 해양산성화 관측고도화 등 | 30 | 6 | '22~'25 |
| 16 | | (마셜제도) 해수온도차 발전 및 역량강화(신규) | 66 | 8 | '23~'26 |
| 17 | | (통가·바누아투) IMO 협약이행 역량강화 리더교육(신규) | 50 | 8 | '23~'27 |
| 18 | | (투발루) 어촌특화개발을 통한 어촌 주민 친환경 역량강화(신규) | 67 | 20 | '23~'26 |
| 19 | | (키리바시·카보베르데)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모델 구축 | 65 | 20 | '20~'25 |
| 20 | 아 프 리 카 | (세네갈) 수산해양경제부 역량강화 사업 | 11 | 4 | '21~'23 |
| 21 | | (모잠비크)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어촌개발사업 | 50 | 13 | '20~'24 |
| 22 | | (가나) 여성어업인 가공·유통 역량강화 사업(신규) | 40 | 10 | '23~'26 |
| 23 | 중남미 | (페루) 기후변화 대응 수산양식교육 역량 강화사업 | 60 | 22 | '22~'25 |
| 24 | 유럽 | (조지아) 해양조사 인프라 구축 | 43 | 9 | '20~'24 |
| 25 | 다 국 가 | (다국가) 해양생태계 보전 국제협력 강화 | 17 | 3 | '21~'25 |
| 26 | | (다국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분담금 | - | 11 | '21~계속 |
| 27 | | (다국가) 여수 해양법 아카데미 초청연수 사업 | - | 4 | '20~계속 |
| 28 | | (다국가)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 | - | 2 | '11~계속 |
| 29 | 기 | ODA 사업평가(신규) | - | 1 | - |
| 30 | 타 | 타당성 조사(신규) | - | 3 | - |



선원정책 혁신을 위해 노사정 함께 머리 맞댄다

해수부, 27일 '제1차 선원정책 혁신 협의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1월 27일 14시 '선원정책 혁신 협의체' 출범식과 함께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 한국원양산업협회, 등 노-사 대표와 함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며, 협의회 의장은 송상근 해양수산부차관이 맡게 된다.

해양수산부가 선원정책 혁신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해양 수산업의 핵심 인적 자원이라 할 수 있는 국적 선원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적 선원 수는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증감을 반복하며 약 38,000명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21년에는 32,510명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선원정책 혁신 협의체'를 통해 국적선원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과제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1차 협의회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선원 노동시장의 전망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마친 후, 참석자들이 발제에 대한 자유토론을 통해 각 업종별로 현안과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앞으로 협의회를 지속 운영하면서 최종적으로 금년 내 중장기 정책방향인 '선원정책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노-사와 함께 힘을 합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특위, 수산단체와 만남의 시작

농특위 위원장, 수산단체장들과 적극적 협력 스킨십 실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장태평 위원장은 2월 8일 농특위 내 새로 마련한 제로라운지(Zero Lounge)에서 수산단체장들과 함께 수산 부문 현안과 농특위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특위가 수산단체장들과 별도의 간담회를 가진 것은 처음으로 수산단체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농특위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간담회에는 임준택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 정영훈 한국수산회장, 김성호 한국수산경영인중앙연합회장, 배기일 한국수산무역협회장, 윤명길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이 참석하였으며, 임준택·정영훈·김성호 회장은 농특위 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산단체장들은 현장에서의 애

로사항으로 작용하는 규제의 개선, 수산물의 수출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지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 CPTPP 대책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22년에 농특위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전국 5개권역에서 주최한 '수산자원 정책혁신 발굴단'의 성공적인 소통 노력과 헌신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농특위에서는 범부처 차원에서의 수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및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하였다.

농특위는 금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른 수산단체와도 주기적인 만남의 자리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발표

어류부산물은 재활용 대상에서 빠져

버려지던 굴·조개 껍데기 새로운 소득원이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견 수렴,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와 협의 등을 거쳐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수산부산물법)」에 따라 수립된, 수산부산물 관련 최초의 법정 기본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027년까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률을 현재 19.5%에서 30%까지 제고하고, 총 1,000억 원을 투입해 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산업을 육성할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주기 수산부산물 자원 순환 기반 구축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개발 △수산부산물 재활용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과 10대 세부과제를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해수부는 부류별 재활용 여건과 현장 수요를 감안해 「수산부산물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체계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공동집하장과 같은 지역단위 분리배출시설을 확충하고, 수협 등 생산자단체가 영세어업인의 분리배출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양식 과정에서 플라스틱 코팅사(플라스틱으로 코팅된 로프로, 굴, 홍합 등을 매달아 수중에서 양성하기 위해 사용)가 섞여, 다른 부류에 비해 재활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패류 껍데기에 대한 전처리 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전처리를 거친 패류의 껍데기를 탈황제, 석회석 대체재 등 재활용 제품으로 제조하는 대규모 자원

화 시설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맞춤형 지원을 하고자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수산부산물 현황 및 지역특화산업, 재활용 기술 수요 등을 고려해 품목별 전처리·자원화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의 수명 주기에 따른 맞춤형 판로 확대 정책을 실시한다. 신규 재활용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구매 확대, 공공기관의 선도적 사용 등 공공 수요를 창출하고, 단계적으로 친환경 인증 지원과 녹색구매지원센터 내 입점을 지원하는 등 민간 수요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수산부산물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자동으로 매칭해 상호 필요한 수산부산물을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두 번째 전략으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수산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위한 재활용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수산부산물은 주로 분쇄·건조 등 단순처리를 거쳐 부가가치가 낮은 비료, 사료 등으로 재활용됐다.

세 번째 전략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생태계의 확장·성숙을 통해 수산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수산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실태조사 결과와 기초 통계를 기반으로 하여 수산부산물 맞춤형 자원순환 지표를 발굴한다. 또한 금년 7월 구축하여 운영 중인 수산부산물 통계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수산부산물의 배출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재활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어류 부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반대로 수산부산물법에 재활용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기사 출처: 현대해양



한·페루 수산물 위생약정

안전관리 책임·의무 부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로 수입되는 페루산 수산물의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페루 국립수산물보건청과 지난 13일 '한·페루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위생 약정은 페루 정부가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2024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약정체결로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국은 10개국으로 늘어나 약정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은 전체 수산물 수입량의 약 80%를 차지하게 됐다.

이번 약정으로 △수출국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정부 기관(페루 국립수산물보건청)의 위생 안전관리 △수출국의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시 수입 중단·원인조사 등이 이뤄진다.

페루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연간 4만 5,000여톤으로 종류는 주로 냉동오징어·흰다리새우·붕장어 등이며, 지난해 기준 페루산 오징어는 국내로 수입되는 오징어 수입 물량 중 가장 큰 비중(35.8%)을 차지한다.

* 기사 출처: 어민신문

고부가가치 수산 가공식품 개발로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

해외소비자 성향 반영 특화상품 개발할 기업 2/15부터 모집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수산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상품화하고, 해외시장 홍보·판촉을 위해 추진하는 '수출유망상품화 사업'에 참여할 수출기업을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유망상품화 사업'은 해외 소비자가 원하는 수산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원물 중심의 수산물 수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유망상품 개발 단계에 따라 특화상품개발 1단계(3개소 선정), 특화상품개발 2단계(2개소 선정), 상품고도화 1단계(8개소 선정), 상품고도화 2단계(7개소 선정) 총 4단계로 구분하여 최대 2억원을 지원하며, 선정기업의 사업 성과 등

을 평가하여 최대 4년까지 연속으로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배정된 수출유망상품화 예산 내에서 ▲수출상품 개발 비용, ▲해외시장 마케팅 비용 등을 집행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 및 고도화하고, 수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17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수산식품 인증비, 제품 개발·고도화 비용, 해외시장 홍보비, 판촉비 등을 지원하여 40개 제품을 개발하여, 6백만불의 해외 매출을 달성하였다.

사업 신청은 수산식품 수출지원 플랫폼(<http://biz.k-seafoodtrade.kr>)을 통해 가능하며,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 2월 깜짝특별전」 개최

2.9~2.26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를 인하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26일까지 18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 - 2월 깜짝특별전」을 개최한다. 오프라인에서는 2월 9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에서는 13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다.

2월 행사는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과 광어·우럭 포장회를 비롯한 문어, 멍게 등 제철 수산물이 할인 대상 품목이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지에스(GS) 리테일, 수협바다마트, 농협하나로마트, 우리마트 등 14개 오프라인 업체와 우체국쇼핑, 마켓

컬리, 쿠팡, 수협쇼핑 등 26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하며,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추가해 소비자들은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께서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해수부, 기업어로 해소로 수출 확대 도모한다

민관 합동 해양수산 수출추진기획단 구성

해양수산부는 최근 글로벌 건축 기조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수출 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합동 「해양수산 수출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단장을 맡아 해양수산 전 분야의 수출현황을 점검하고, 분야별 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기획단 구성을 통해 해수부는 해운물류, 수산식품 등 기존 주력 수출 분야뿐만 아니라, 해외항만 수주, 해양관광객 유치에 이르기까지 해양수산 상품·서비스 수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운물류반, △수산식품반, △항만투자반, △해양관광반 등 4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기획단은 국적선사의 경영안정과 수출입 물류 지원, 수산식품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해외항만 수주 확대, 크루즈 선사 국내 기항 유치 등을 위한 방안을 민간과 함께 모색해 갈 예정이다. 특히, 국내 수출입 물량의 99.7%가 해상운송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국내 제조업체들의 수출입 물류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기획단은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될 예정이며, 각 반별 수시 회의를 통해 발굴된 규제개선, 판로개척 지원 관련 과제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서별 연락처

| 임원실 | 성명 | 전화번호 | 비고 |
|--------|-----|---------------|----------|
| 회장 | 윤명길 | 589-1600 | |
| 상무 | 신현애 | 589-1602 | 해외협력본부장 |
| 이사 | 이형균 | 589-1603 | 경영지원본부장 |
| 비서(주임) | 조한솔 | 589-1601/1621 | 비서, 출납업무 |

| 부 서 | | 성 명 | 전화번호 | 담 당 | 부 서 | | 성 명 | 전화번호 | 담 당 | |
|--------|--------|--------|----------|---------------|------------|----------|----------|-----------|----------|--------------|
| 경영지원본부 | 총무부 | 강성현 부장 | 589-1604 | 총괄 | 해외협력본부 | 해외협력 1부 | 신현애 상무 | 589-1612 | 총괄(검직) | |
| | | 공길웅 과장 | 589-1605 | 총무, 자금 | | | 최봉준 과장 | 589-1613 | 국제 협력 | |
| | | 조성환 과장 | 589-1606 | 서무관리, 차량운영 | | | 백상진 주임 | 589-1614 | 참치선망 | |
| | 기획홍보부 | 이형균 이사 | 589-1607 | 총괄(검직) | | 정윤경 사원 | 589-1615 | 참치연승 | | |
| | | 김영수 과장 | 589-1608 | 기획, 홍보 | | 해외협력 2부 | 진호정 부장 | 589-1616 | 총괄 | |
| | | 김민재 사원 | 589-1609 | 원양뉴스, 생산통계 | 최상진 사원 | | 589-1617 | 오징어, 기타트롤 | | |
| | 회원지원부 | 조성주 과장 | 589-1620 | 원양산업발전 TF팀 간사 | 이승환 사원 | 589-1618 | 북양, 쫄치 | | | |
| | | 회원지원부 | 소기동 부장 | 589-1610 | 총괄 | 부산지부 | 공인계량소 | 이성재 이사 | (051) | 총괄 |
| | | | 김효상 과장 | 589-1611 | 무역제도, 수출통계 | | | 김현애 과장 | 253-3388 | 확인업무(수출,반입등) |
| | 최동환 주임 | | 589-1619 | 노사, 선원 | | | 이동주 팀장 | 051 | 차량계량 | |
| | | | | | | 최광준 팀장 | 253-3391 | 차량계량 | | |

| | | | | | | | | | |
|--------------|---------|-------------------|------------------------------|---------------------------------|---------|---|---------|------------------------------|------------------------|
| 해외수산협력센터(세종) | 센터장실 | 이상목 센터장 | 044-868-7360 | 협력센터 총괄 | 국제협상지원팀 | - | 김수민 전문관 | 044-868-7831 044-868-7363 | 일반/지역수산기구 일반/지역수산기구 |
| | 기획운영팀 | 이희진 팀장 권준양 행정관 | 044-868-7834 044-868-7837 | 행정총괄, 명예수산물 OFIS, 해외수산투자, 행정 | 해외진출지원팀 | - | 윤유정 행정관 | 044-868-7836 044-868-7838 | ODA 통계, 협의회 |
| | 국제협상지원팀 | 양재걸 전문관 | 044-868-7364 | 일반/지역수산기구 | | | | | |

■ 협회 홈페이지 : www.kosfa.org ■ 팩스번호(서울) : 02-589-1630/1, (부산지부) : 051-253-3392, (해외수산협력센터) : 044-868-7840

명예해양수산물 연락처

| 담당지역 | 성명 | 연락처 |
|--------|-----|--|
| 사모아 | 오시영 |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
| 피지 | 김종태 | 679-330-7188 ckpfj@naver.com |
| 인도네시아 | 이재원 | 62-0343-4742525 imsindo@hanmail.net |
| 가나 | 이윤홍 | 233-303-200995 skshipafrica@yahoo.com |
| 세네갈 | 김점봉 |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
| 뉴질랜드 | 윤정환 | 64-3-344-1617 seajho@xtra.co.nz |
| 파푸아뉴기니 | 정승화 | 675-321-8137 jc651016@gmail.com |
| 아르헨티나 | 이상우 | 54-223-495-0712 kargeexport@gmail.com |

해외협력자문위원 연락처

| 담당지역 | 성명 | 연락처 |
|------|-----|---|
| 남아공 | 조창원 | 27-21-447-1634/1515 saka0505@naver.com |
| 수리남 | 박권현 | 597-42-2185 donghee_sur@yahoo.co.kr |

**원양산업
제1154호**

발행처
한국원양산업협회

발행 : 2023년 2월 15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 서울라-9183호 / 간별 : 월간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양재동, 삼호물산B/D A동 6층)

발행인
윤명길

편집인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현명한 주부는 원양산 생선을 좋아해~

【원양산과 수입산 구별 요령】 원양산은 원산지 표시를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표시하므로 '원양산' 표기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사례 : 원양산 또는 원양산(대서양)>

통조림용 참치조림 장면

원양생선은 우리나라 어선이 잡는 즉시 선상에서 위생적으로 냉동처리하기 때문에 수입수산물과는 달리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적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참 치 회

DHA, EPA, 셀레늄이 풍부



참치통조림

심장병 등 성인병 예방



오징어

피로회복 성분,
타우린 다량 함유



명 태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



조기류(민어과)

제수용 생선으로 제격



공 치

불포화지방산 다량 함유

원양산 생선을 수입산과 동격 취급 마세요!



◎ 원양산 생선이 수입산보다 왜 좋을까?

01

내국물품 (우리 어선이 잡은 생선)

원양산은 우리나라 어선이 외국 원양 수역이나 해외 공해상에서 잡아 직접 국내로 들어오는 생선이기 때문에 연근해산과 마찬가지로 내국 물품에 해당한다. 반면 수입산은 외국물품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02

오염우려 없는 친환경 생선

원양산은 대부분 청정해역이나 오염이 되지 않은 대양에서 안전한 위생 기준(HACCP)에 의해 생산되어 식품안전성이 수입산과 달리 뛰어납니다.



03

선상급랭 시설을 통한 우수한 신선도 관리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선상급랭 시설이 매우 우수해 어획 즉시 선상에서 곧바로 급랭하여 국내로 반입되기 때문에 수입산에 비해 신선도가 훨씬 뛰어납니다.

